

碩士學位論文

굴림체의 조형적 특징과
선호도 분석 연구

2011年



漢城大學校 大學院

미디어디자인學科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專攻

崔 丁 化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志炫

굴림체의 조형적 특징과
선호도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Preference Analysis of Gulim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미디어디자인學科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專攻

崔 丁 化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志炫

굴림체의 조형적 특징과
선호도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Preference Analysis of Gulim

위 論文을 美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미디어디자인學科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專攻

崔 丁 化

崔丁化의 美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3
제 1 절 한글 글자꼴의 역사	3
1. 새활자 시대	4
2. 원도활자 시대	4
3. 디지털활자 시대	5
제 2 절 한글 글자꼴 관련 용어	7
제 3 장 굴림체	11
제 1 절 나루체	12
제 2 절 굴림체의 구조 및 형태적 특징	14
1. 굴림체의 자음	14
2. 굴림체의 모음	24
제 3 절 굴림체의 글자꼴 구조와 형태 비교 분석	26
1. 비교분석 대상 글자꼴	26
2. 비교분석 방법	26
3. 비교분석 내용	26

제 4 절	굴림체의 비교 분석 결과	37
제 5 절	사용현황 및 사례	38
제 4 장	설문설계 및 실험	41
제 1 절	설문방법 및 계획	41
제 2 절	설문대상	41
제 3 절	설문내용	42
제 4 절	설문결과	44
제 5 장	결론 및 제언	59
【참고문헌】		61
【부 록-설문지】		62
ABSTRACT		78



HANSUNG
UNIVERSITY

【 그 림 목 차 】

<그림 1> 한글의 글자꼴 기본명칭	7
<그림 2> 굴림체의 6가지 대표 자모조합 구조	11
<그림 3> 나카무라 유키히로의 콘테스트 입상 당시의 나루체	12
<그림 4> 나카무라 유키히로가 직접 손으로 쓴 나루체의 원고(48mm)	13
<그림 5> 현재의 나루체	13
<그림 6> 굴림체와 나루체의 특징 비교	13
<그림 7> 굴림체의 낱글자	15
<그림 8> 굴림체의 가로모임 민글자에서의 자음	18
<그림 9> 굴림체의 가로모임 받침글자에서의 자음	19
<그림 10> 굴림체의 세로모임 민글자에서의 자음	20
<그림 11> 굴림체의 세로모임 받침글자	21
<그림 12> 굴림체의 섞임모임 민글자에서의 자음	22
<그림 13> 굴림체의 섞임모임 받침글자에서의 자음	23
<그림 14> 굴림체의 모음 분석도	25
<그림 15> 줄기형태 비교분석도	27
<그림 16>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자음형태 비교분석도	28
<그림 17>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모음형태 비교분석도	29
<그림 18>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자음형태 비교분석도	30
<그림 19>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자음비례 비교분석도-가로모임	31
<그림 20>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자음비례 비교분석도-세로모임	33
<그림 21>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자음비례 비교분석도-섞임모임	34
<그림 22>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모음 비교분석도	35
<그림 23>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외각형태 비교분석도	36
<그림 24> 글자사이와 낱말사이 비교	36
<그림 25> 굴림체 사용 사례 - 1	38
<그림 26> 굴림체 사용 사례 - 2	39
<그림 27> 굴림체 사용 사례 - 3	40

<그림 28> 설문결과 - 1	44
<그림 29> 설문결과 - 2	45
<그림 30> 설문결과 - 3	46
<그림 31> 설문결과 - 4	47
<그림 32> 설문결과 - 5	48
<그림 33> 설문결과 - 6	53
<그림 34> 설문결과 - 7	54
<그림 35> 설문결과 - 8	55
<그림 36> 설문결과 - 9	56
<그림 37> 설문결과 - 10	5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꼴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쉽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 굴림체는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글꼴 중 하나이다. 일본의 나루체가 모체인 굴림체는 70년대 일본으로부터 제작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글자꼴로서 초창기 컴퓨터용 기본 글자꼴의 하나로 입력, 무료 배포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우리나라의 모든 관공서나 일반회사의 각종 보고서 및 안내문 등을 비롯하여, 이제는 컴퓨터를 다루는 전 국민에게 굴림체는 가장 쉽게 사용되는 글자꼴일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글자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굴림체의 역사와 제작배경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제대로 이 글자꼴에 대한 조형요소의 특징이나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최근 전문 타이포그래퍼들은 이 글자꼴의 사용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반 사용자들의 많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타이포그래퍼들의 굴림체 사용 지양에 대한 견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울러 어떤 문제점이 내재되어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한 해답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과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굴림체의 제작배경 및 그 조형요소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굴림체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도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쉽게 선택하여 편리하게 활용했던 굴림체의 선택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왜 지양되어야 하는지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더불어 한글 글자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선점을 모색 제안하여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발전된 우리의 한글문화에 작게나마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Microsoft’사에서 기본글꼴로 포함되어 있는 ‘굴림체’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산돌커뮤니케이션의 ‘나눔고딕’체, 윤폰트의 ‘윤고딕115’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단, ‘굴림’, ‘새굴림’체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굴림체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나눔고딕체, 윤고딕체의 자, 모음의 특징 및 낱글자의 전체 형태와의 비교를 통해 굴림체가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설문문을 통해 일반 사용자와 전공자의 굴림체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설문문 바탕으로 원인분석 후,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한글 글자꼴의 역사

한글은 단순 간결한 수직, 수평선과 사선, 동그라미, 삼각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를 지니고 태어난 글자로서 줄기의 굵기가 일정하고, 부리나 맺음은 어떠한 장식도 없이 단순하게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낱글자가 모여 한 글자를 만들 때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한글은 선으로 인식되는 선 글자인 동시에 덩어리로 인식되는 형태글자이다. 다시 말해 기하학적 요소로 이루어져서 선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외곽형태가 복합적으로 인식되는 글자이다. 따라서 한글은 두 가지의 장점을 함께 가져서 판독성과 가독성이 우수하다. 이런 특징들은 한글만이 갖는 과학적인 장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롯되는 기능상의 문제점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모아쓰기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글자꼴이 획일적인 네모틀이라는 점이다. 닿자와 홀자들은 가로나 세로 또는 섞임꼴로 구조를 이루어, 하나의 낱글자를 만들 때 거의 같은 네모틀을 취한다. 그래서 시각적 특징의 기본 요소인 낱글자의 줄기 숫자에 관계없이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게 된 것은 일정한 네모틀 안에 짜 맞추려고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기본 단위인 낱자가 같은 음가를 갖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로마자의 독립된 낱자가 같은 음가를 가지며 소문자, 대문자 두 가지로만 나누어지는 것과 대조된다.¹⁾

한글꼴의 역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본 논문에서는 새 활자시대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옛 활자시대: 문종 원에서 철종 말년까지 (1451년-1863년)

새 활자시대: 고종 원년에서 한국동란 직전까지 (1864년-1949년)

원도활자시대: 한국동란 때부터 1980년대까지 (1950년-1989년)

1) 안상수·한재준, 『한글디자인』, 서울: 안그래픽스, 1999, pp.26~28 요약.

1. 새활자 시대

1883년 한자 활자로만 된 <한성순보>를 발간에 이어 1886년 근대 인쇄술에 의한 한글과 한자혼용의 <한성주보>가 발간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초의 근대식 한글 납활자는 최지혁의 궁서체를 바탕으로 제작한 대, 중, 소 3가지 크기의 새 활자체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초의 근대식 한글 납활자들이 일본 기술에 의해 일본에서 주조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한글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활자에 한글을 끼워 맞추는 식의 활자개발의 문제가 한글 디자인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자리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²⁾

2. 원도활자 시대

1950년 6.25전쟁 이후 일본에서 자모 조각기를 도입하여 한글 활자체 전문인 1세대로 구분되는 박정래, 최정호의 원도에 의한 자모 조각이 이루어졌다.

1945년 최초로 모리사와 사진식자를 도입되고 이후, 샤켄 식자기가 등의 보급되면서 활발한 한글 원도 활자시대의 서막을 장식하였지만, 이들 또한 모두 일본에 의한 개발이었다. 한편, 해방 이후 미군정 시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글자인 영문 알파벳의 등장을 이끌었고, 이때부터 영문 알파벳에 대한 관심은 이전의 한자에 대한 사대 의식과 다를 바 없이 한글문화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³⁾ 더욱이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가 자연스럽게 디자인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확산시켰고, 더불어 영문 활자체의 활용이 더욱 가속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1969년 한글꼴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가 서울대학교 부속 한국디자인센터에서 김영기에 의해 시도되기도 하였으며 1974년에 김진평은 그의 석사 학위논문에서 「한글 Logotype의 기초적 조형 요소에 관

2) 유정숙, 김지현, 『한글공감』, 서울: 안그래픽스, 2010, p.32 요약.

3) 김미진, 「헤드라인을 위한 한글문자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82, p.20.

한 연구」를 다루었으며.⁴⁾ 이어 김홍련, 홍부용, 김인철 등에 의해 한글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이어졌다. 1979년에는 이상철을 중심으로 김진평, 안상수, 석금호, 손진성 등 ‘글꼴모임’을 만들어 한글꼴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1970년대를 기점으로 사진식자기의 국산화가 시작되었고, 컴퓨터라고 하는 제작 도구의 새로운 전환은 1980년대에 한글 글자꼴의 활발한 전산화 개발로 이루어졌다.⁵⁾

3. 디지털활자 시대

1990년대부터 컴퓨터 점 폰트 글자로부터 윤곽선 폰트시대로, 1995년 이후로는 글자의 굵기나 방향 크기의 변형이 자유로운 다중 윤곽선 폰트가 개발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설립된 많은 한글 폰트 업체들은 한글 활자체의 새로운 발전을 암시하였고, 이들은 전통적인 네모틀과 새로운 탈네모틀 글자체의 다양한 개발에 이바지하였다.⁶⁾

2000년에 들어서면서 글자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도로표지판과 차량번호판, 지하철의 사인보드 글자꼴이 바뀌었다. 기업의 CI나 한글 전용 글자꼴등이 활발히 제작되고 휴대기기에 다양한 폰트서비스들이 제공됨으로써 글자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 효과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삼성⁷⁾, 현대카드, 올레, 하나은행, 교보 등 많은 기업들이 한글전용서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일관된 이미지 구축과 폰트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통해 기업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폰트개발업체들의 한글에 대한 활동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산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함께 나눔고딕과 나눔명조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폰트개발업체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폰트개발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4) 김미진, 전계서, p.21.

5) 유정숙, 김지현, 『한글공감』, 서울: 안그라픽스, 2010, p.36.

6) 유정숙, 김지현, 상계서, 2010, p.41.

7) 2007년 산돌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삼성 독자 폰트를 개발하였다. 명조와 고딕, 프레젠테이션용 서체가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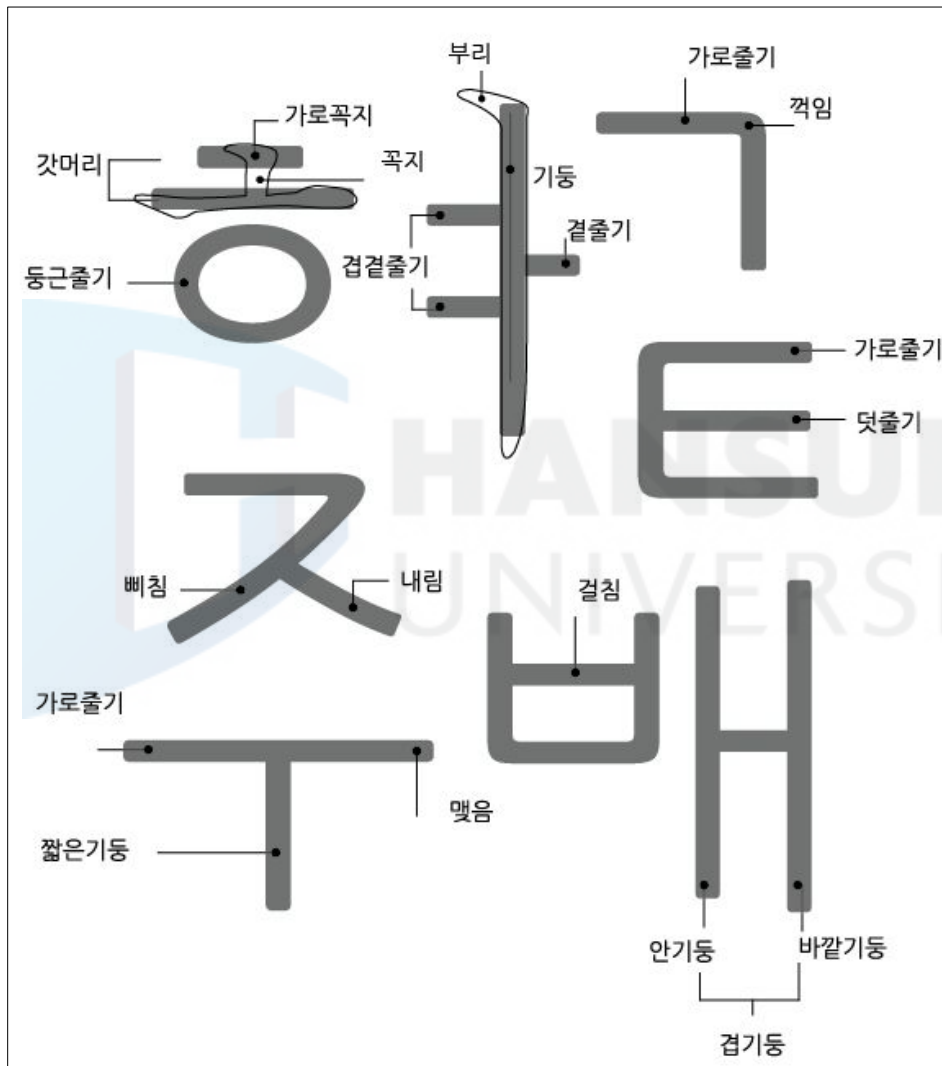
러한 정보교환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글자꼴의 무분별한 다운로드 및 불법복제를 통한 글자꼴 사용은 글자꼴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고 한글 글자꼴 개발을 막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디지털시대의 한글 글자꼴은 단순히 한글을 표현하는 시각적 기호를 넘어서 한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조형성을 살려 개인 혹은 기업을 표현하는 마케팅 요소로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글자꼴의 바른 형태의 사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한글 글자꼴 관련 용어

본 연구의 진행에 앞서 한글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글자꼴 관련 요소는 다양하게 불리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글꼴용어사전에 명시된 용어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한글꼴용어사전(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국글꼴개발원)에서 필요한 한글글자꼴 명칭을 다음과 같이 발췌한 것이다.



<그림 1> 한글의 글자꼴 기본 명칭

가로 글자 : 가로 모임글자, 초성과 중성이 가로로 조합된 글자.

당자와 홀자가 가로로 모여서 이루어지는 글자.

보기: 가, 나, 다, 개.

가로 꼭지 : 한글 자모 ㅈ, ㅎ 등의 위에 붙은 짧은 점(또는 획)

가로 모임 민글자 : 받침이 없는 가로 모임 글자.

가로 모임 받침글자 : 받침이 있는 가로 모임 글자.

가로줄기 : 가로로 된 모든 줄기. 이를 떼면 ㄱ ㄴ ㄷ ㄹ ㅁ (생략) ㅂ ㅅ ㅈ ㅊ 등
에서 가로로 그은 선.

가로 홀자 : ㄷ, ㅌ, ㅊ 등의 가로줄기 위주로 이루어진 홀자.

가운데 가로 줄기 : 한글 한 낱자에 가로줄기가 셋인 때에 가운데에 그은
가로줄기를 말한다. 이를떼면, ㄴ, ㄷ에서 가운데에 그은 가로줄기.

갈래 : ①한글에서 두 이상으로 갈라져 나간 낱의 부분이나 가닥.

②한글꼴의 ㅈ이나, ㅊ에서 그 줄기의 모양새가 갈라지거나 꺾이는 형
태에 따라 갈래 지웃 또는 갈래 치웃이라 한다.

갓머리 : ㅎ에서, ㅇ 부분을 제외한 모자 모양의 부분이다.

겹기둥 : 세로 홀자에서 두 개로 모인 기둥, 바깥 기둥과 안 기둥으로
구분 한다. 글자 ‘ㄱ, ㄴ, ㄷ, ㄹ’ 등 기둥이 두 개로 모인 홀자.

겹홀소리 : 두 이상이 홀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소리가 되는 것으로서 그
소리나는 동안의 처음과 나중의 발음이 변화하는 모음. 곧 ‘ㅑ, ㅕ, ㅛ,
ㅟ, ㅓ, ㅗ, ㅛ, ㅜ, ㅠ, ㅡ’ 등, 거듭 홀소리, 이중모음, 중모음

결줄기 : ‘ㅂ’나 ‘ㄴ’에서와 같이 세로 기둥에 옆으로 짧게 붙은 가지 모양
의 줄기. 보기: ‘ㅂ, ㅅ, ㅈ, ㅊ’등의 결줄기.

기본 줄기 : 글자 맵시나 성격을 이루는 데 바탕이 되는 가장 적은 수의
줄기. 바탕 줄기.

낱글자 : 하나의 당자나, 홀자, 낱소리 마디를 나타내는 낱의 글자.

낱의 일정한 당자와 홀자가 모이면 하나의 온글자를 이룸.

닿소리 글자 : 닿소리를 나타내는 글자. 자음은 홀로 나는 소리인

홀소리에 반드시 닿아야만 나는 소리인 ‘닿소리’이다. 이러한 닿소리
를 적어내는 글자인 닿소리 글자를 간략히 줄여서 닿자라고 한다.

덧줄기 : 한글 닿소리 글자인 ‘ㄱ’의 아래 가로줄기와 ‘ㅌ’의 가운데 가로줄기를 기본글자인 ‘ㄱ, ㄷ’에 덧붙인 줄기.

두겹홀소리 : 두 홀소리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홀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

동근 줄기 : 동글에 이어진 줄기.

보기: 닿자 ㅅ, ㅎ에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선.

민글자 : 받침 없이 닿자와 홀자만 덧붙혀 이루는 온자. 아무 꾸밈새나 아무 꾸밈새나 붙어 달린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인 ‘민’을 붙여서 민온자라 한다.

바깥 기둥 : 겹겹기둥에서 바깥쪽에 있는 기둥. 한글 한 낱자에 세로줄기가 둘 이상인 때에 오른쪽에 그은 세로줄기를 말한다.

받침 글자 : 받침이 있는 글자. 닿자와 홀자와 받침 각각의 낱자가 덧붙여져 이루는 받침 있는 글자.

받침 닿자 : 끝소리를 나타내는 글자. 첫닿자와 받침닿자를 구분하여 표현할 때 쓰인다.

밝은 홀소리 : 우리말의 홀소리에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와 같이 발음이 밝고 어감이 작은 홀소리. 모음조화에 있어서 중간홀소리와는 어울리나 어두운 홀소리와는 서로 피하는 경향이 있다.

빼침 줄기 : 한글의 닿소리 글자에서 빼쳐서 그은 사선. ‘ㅅ, ㅈ, ㅊ, ㅌ, ㅋ’에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빼친 선이다. 다만 오른쪽으로 비친 선은 빼침받이줄기라고 한다.

세로모임 민글자 : 닿자와 ‘ㄱ, ㄴ, ㄷ, ㅌ’와 같이 ‘ㅡ’꼴의 가로홀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받침이 없는 글자의 총칭. 보기: 고, 구, 요, 류,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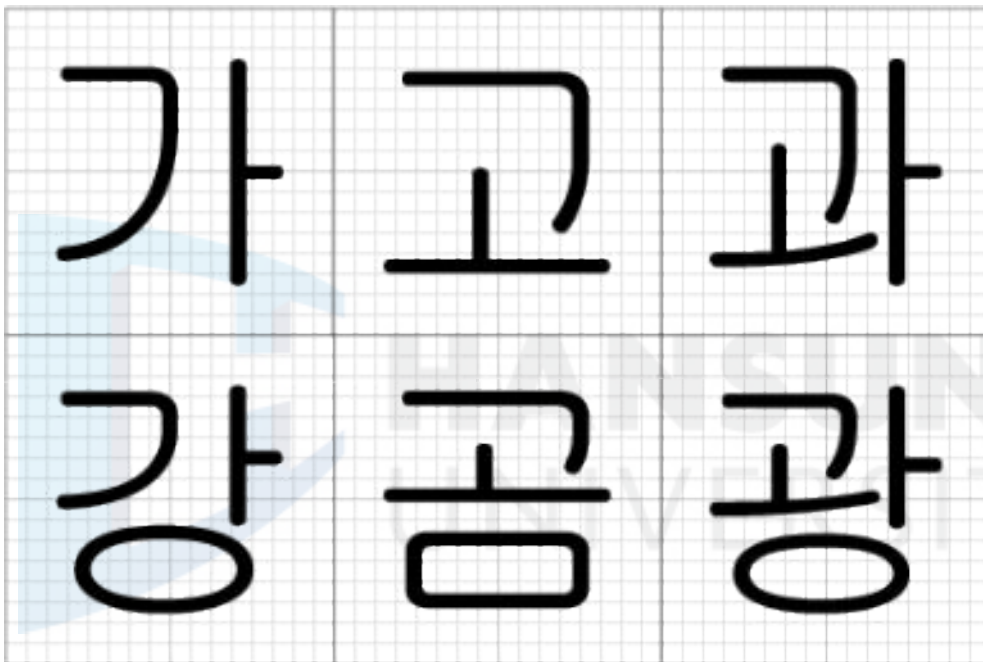
세로모임 받침글자 : 닿자와 ‘ㄱ, ㄴ, ㄷ, ㅌ’와 같이 ‘ㅡ’꼴의 가로홀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받침이 있는 글자의 총칭. 보기: 공, 국 등

세로줄기 : 한글의 닿소리 글자와 홀소리 글자에서 세로로 그은 선.

아래 가로줄기 : 한글 한 낱자에 가로줄기가 둘 이상인 때에 아래로 그은 가로줄기를 말한다. 이를테면 ‘ㄷ, ㄹ, ㅁ, ㅂ, ㅋ, ㅌ, ㅍ, ㅊ,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에서 아래에 그은 가로줄기가 그것이다.

제 3 장 굴림체

한글 굴림체는 1970년 일본의 나카무라 유키히로가 개발한 나루체의 글자 성격을 한글에 응용한 글자체로서 여기에 그대로 나루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굴림체의 특징은 사각 글자 틀 안에 가능한 가득하게 글자를 채우고 글자의 속 공간을 넓힌 것이며, 줄기는 가로와 세로 모두 시각적으로 같은 굵기이고, 줄기의 양끝과 줄기가 꺾이는 곳은 모두 둥글게 굴려 있다.⁸⁾



<그림 2> 굴림체의 6가지 대표 자모조합 구조

본 장의 제1절에서는 굴림체의 모태인 나루체의 형성배경 및 나루체의 글자꼴 특징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굴림체의 글자꼴 구조와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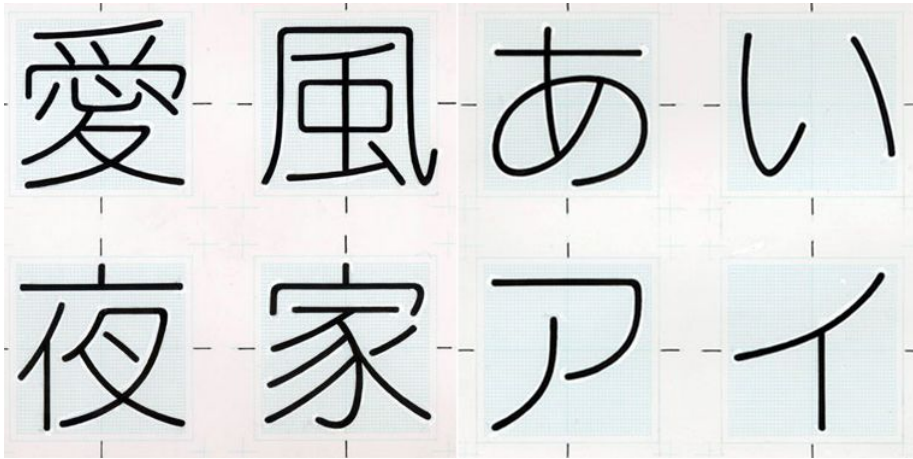
8) 김진평, 『한글의 글자표현』, 미진사, 1983, p.148.

제 1 절 나루체

둥근 고딕 성격의 나루체는 1962년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영자 유로스타일(Euro-style)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형태로 일본에서는 개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글자체였다. 나루체는 1970년 일본의 나카무라 유키히로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샤켄의 제 1회 이시이상 창작 타이프페이스콘테스트에서 입상한 글자꼴이다. 나루체의 곡선부분은 일부 곡선자와 로트링이 사용되었지만 80%는 수작업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48mm 정사각형 종이에 1.5mm 정도의 굵기로 쓰였다. 나루체의 제작당시 나카무리 유키히로는 나루체의 곡선이라든지, 선의 끝을 둥글게 하기 위해 1mm, 2mm 길게 쓰고 다음에 화이트로 지워가며 작업했으며 자간이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굵기를 가늘게 만들었다.



<그림 3> 나카무라 유키히로의 콘테스트 입상 당시의 나루체



<그림 4> 나카무라 유키히로가 직접 손으로 쓴 나루체의 원고(48mm)



<그림 5> 현재의 나루체



<그림 6> 굴림체와 나루체의 특징 비교

제 2 절 굴림체의 구조 및 형태적 특징

문자는 선으로 조립된 몇 개의 기호에 의해 만들어진 시각전달의 중요한 도구이며 이 기호는 문자로서 읽혀질 수 있는 객관적인 약속 위에 성립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사용에서는 문자가 조형의 기본적 요소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도 가독 기능을 배제하고 문자의 형(形)을 시각 전달의 수단인 하나의 기호체계로 보아 순수한 조형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9)

한글은 독창적인 조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양의 알파벳과는 다르게 자음과 모음이 최소 한 개씩 모여(조합되어) 하나의 온전한 글자를 만드는 ‘모아쓰기’ 원리이다. 따라서 서양의 알파벳과는 다른 기준의 구조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자의 기본 단위인 자음과 모음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자음과 모음도 조합구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단자모합성은 제 3절에서 다른 글자꼴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 굴림체의 자음

자음은 아음, 설음, 음, 치음, 후음의 5가지 음을 기준으로 ㄱ, ㄴ, ㄷ, ㄱ, ㅇ 의 기본자를 가진다. 이 기본자는 획이 더해져 ㅋ, ㆁ, ㄷ, ㄴ, ㄹ, ㅁ, ㅂ, ㅅ, ㅈ, ㅊ 이 이루어진다. 위의 14개의 자음은 모음과의 조합에 따라 자음의 가로, 세로 비례가 달라지며 크기 또한 변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음과의 다양한 조합에 있어서 각각의 자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유사한 특징들을 기준으로 굴림체의 자음을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자음의 분석순서는 낱글자, 가로모임 민글자에서의 자음, 가로모임 받침글자에서의 자음, 세로모임 민글자에서의 자음, 세로모임 받침글자에서의 자음, 섞임모임 받침글자에서의 자음 순으로 하였다. 단, 받침으로 쓰이는 자음은 각각 받침글자에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 낱글자

9) 김진평, 『한글조형연구』, 고 김진평 교수 추모 논문집 발간 위원회, 1999, p.24.

낱글자로 쓰일 때의 자음은 대략 가로, 세로 10:6의 비율로서 가로로 긴 형태로 맞춰져있다. [그림 2]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굴림체의 자음 낱글자들은 가로와 세로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지만, 시각적으로는 같아 보인다. 세로획과 가로획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가로줄기는 2mm보다 조금 가늘고, 세로획은 2mm보다 조금 두껍다. ㄱ이나 ㄴ에서는 세로획과 가로획의 굵기가 보이지만, ㄷ, ㅌ, ㄹ, ㅁ, ㅂ을 보면 세로줄기가 가로줄기보다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ㅋ, ㅌ, ㄹ, ㅈ, ㅊ처럼 줄기가 많은 자소일수록 ㄱ, ㄴ, ㄷ, ㅅ, ㅇ에 비해 진해 보인다.



<그림 7> 굴림체의 낱글자

2) 가로모임 민글자에서의 자음(아홉)

자음이 모음과 모이면서 낱자형태에서는 보지 못한 굴림체의 특징들이 드러난다. 두께나 사각틀에 넣은 듯한 형태가 낱자만 있을 때와 비슷하긴 하지만, 낱자보다 자음이 훨씬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모음 때문인데, 가로모임글자에서 모음의 길이에 맞게 자음을 맞췄다. 자음과 모음이 모이면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각형틀이 생겨난 것이다. 가의 경우 ㄱ의 세로획 끝부분이 가로획의 끝부분까지 닿아 있고 마와 바의 ㄹ과 ㅂ은 직사각형처럼 길게 늘어나 있다. 굴림체가 사각형틀에 얼마나 치중하며 제작되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자음의 곡선스타일이다. 낱자에서는 ㄱ, ㄴ, ㄷ, ㄹ 등 대부분의 자소에서 곡선을 찾아볼 수 없다. (ㄱ의 가운데 가로획은 미세하게 곡선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가로모임에서의 자음은 곡선을 갖고 있다. 특히 ㅅ의 곡선스타일이 눈에 띄는데, 기대고 있는 ㅅ의 두 획이 같은 방향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다. 가로모임에서 ㅈ, ㅊ 낱글자에서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ㅅ은 모음과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를 갖는다. ㅅ의 모양은 붓의 놀림에 따라 만들어지는 획의 방향을 따랐다. ㄱ의 형태도 변했다. 낱자일 때는 아래 가로획이 세로획에 붙어 있지만, 가로모임글자에서 ㄱ은 획이 분리되어 있다. 마치 ㄱ에 그대로 획 하나만 더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획의 분리 원칙은 나루체의 자소분리원칙과 흡사하다.

3) 가로모임 받침글자에서 초성과 받침으로서의 자음(아홉)

위의 그림을 보면 가로모임받침글자에서의 초성과 종성역할의 자음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굴림체의 가로모임받침글자의 조합은 매우 흥미롭다. 낱자만 있을 때의 형태와 가로모임에서의 자음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을 보면 초성에 쓰인 ‘ㄱ’은 가운데 획이 세로획에 떨어져 있고 받침으로 쓰인 ‘ㄱ’은 세로획에 붙어 있다. 다시 말해 가로모임으로 이루어진 온글자에 낱자를 받침으로 쓴 것이다. 낱자와 받침이 완벽하게 똑같은 않지만, 그 특징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또한 받침은 초성과 모음의 넓이만큼 가로로 늘어나 있다. 결국 각각의 자소들이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자음과 모음이 멀어지거나 늘어나는 것이고, 받침이 없을 때보다 받침이 있을 때 글자의 형태를 사각형에 가깝게 만든다.

4) 세로모임 민글자에서의 자음(오꿀)

세로모임글자에서는 사각형에 맞추려는 규칙의 한계가 나타난다. 자음의 곡선은 가로모임글자보다 훨씬 덜 휘었다. ㄱ과 ㅋ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다른 조합보다 곡선 스타일이 비교적 어색하다. 자음의 세로획을 이용해 네모틀에 최대한 가득 맞추면서 동시에 굴림체만의 곡선스타일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음 ㅡ를 조합하면 ㄱ은 모음과 닿아 획이 중간에 잘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 토, 호는 자음이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아 모음과 닿았다. 호에서는 ㅎ이 ㅛ를 덮어버려 획 끝의 곡선이 사라져 버렸다.

5) 세로모임 받침 글자에서 초성과 받침으로서의 자음(오꿀)

곡과 ㄱ의 초성은 세로획의 곡선 때문에 가로모임에서의 자음과 같은 스타일의 글자꼴로 보인다. 이것은 ‘받침글자’가 가로모임이든 세로모임이든 초성으로서의 자음에는 곡선스타일을 주고, 받침에는 날자만 있을 때의 자음형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곡과 ㄱ을 제외하고는 초성과 받침이 날자형태로 쓰일 때의 자음과 형태가 거의 같다. 논, 둔, 툐, 툐 에서는 곡선스타일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6) 섞임모임 민글자에서의 자음(와꿀)

섞임모임 민글자에서의 자음특징은 세로모임받침글자에서의 초성형태와 같다. ㄱ과 ㅋ에만 곡선이 있을 뿐 다른 자음에는 곡선이 표현되지 않았다. 또한 가로모임받침글자의 초성자음처럼 자음의 형태가 정사각형에 가깝고, 어떤 조합에서보다 ㅎ의 원이 정원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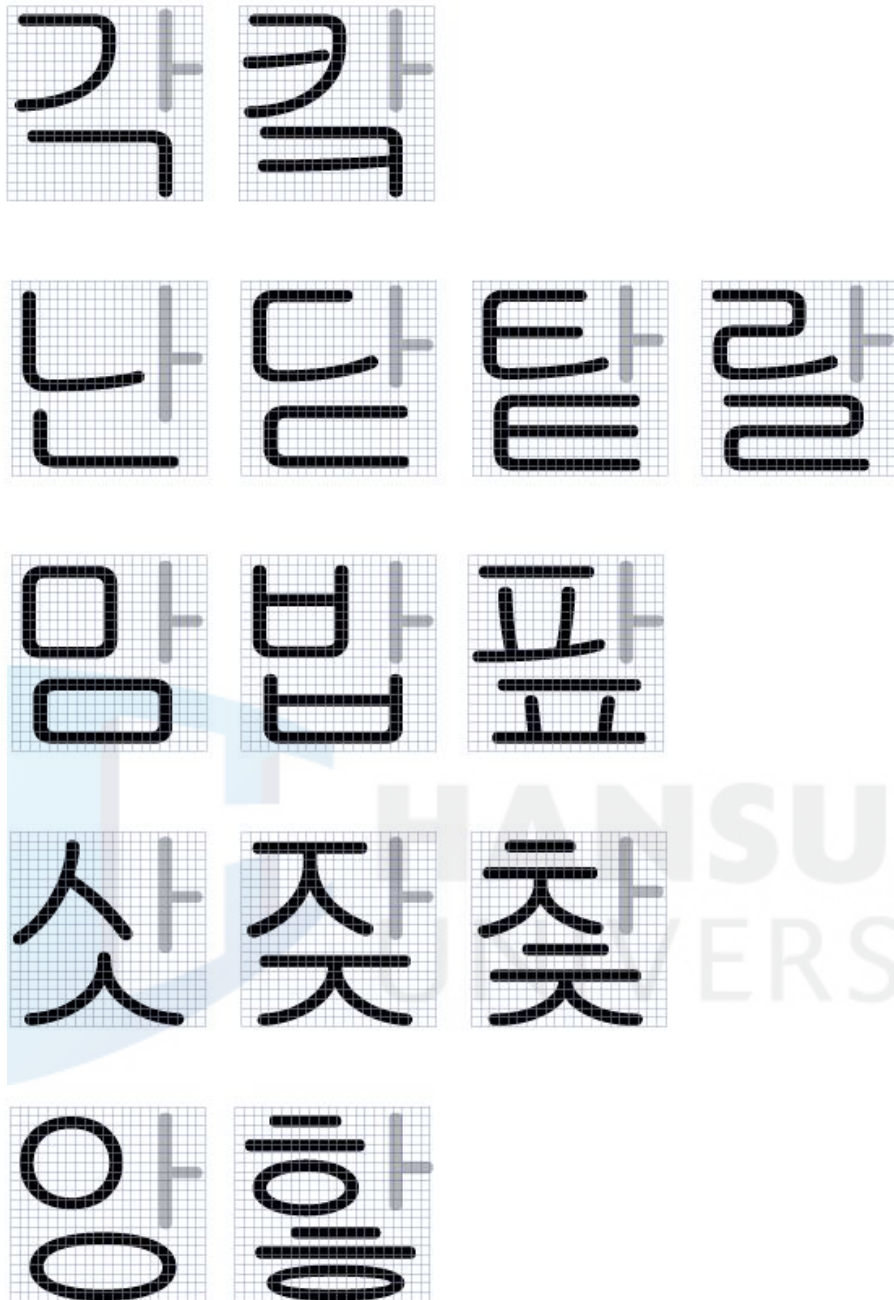
7) 섞임모임 받침글자에서의 초성과 받침으로서의 자음(와꿀)

섞임모임 받침글자에서의 자음형태는 섞임모임 민글자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받침이 네모틀에 맞춰 가로로 늘어나면서 활과 찻 같이
줄기가 많아질수록 두껍고 커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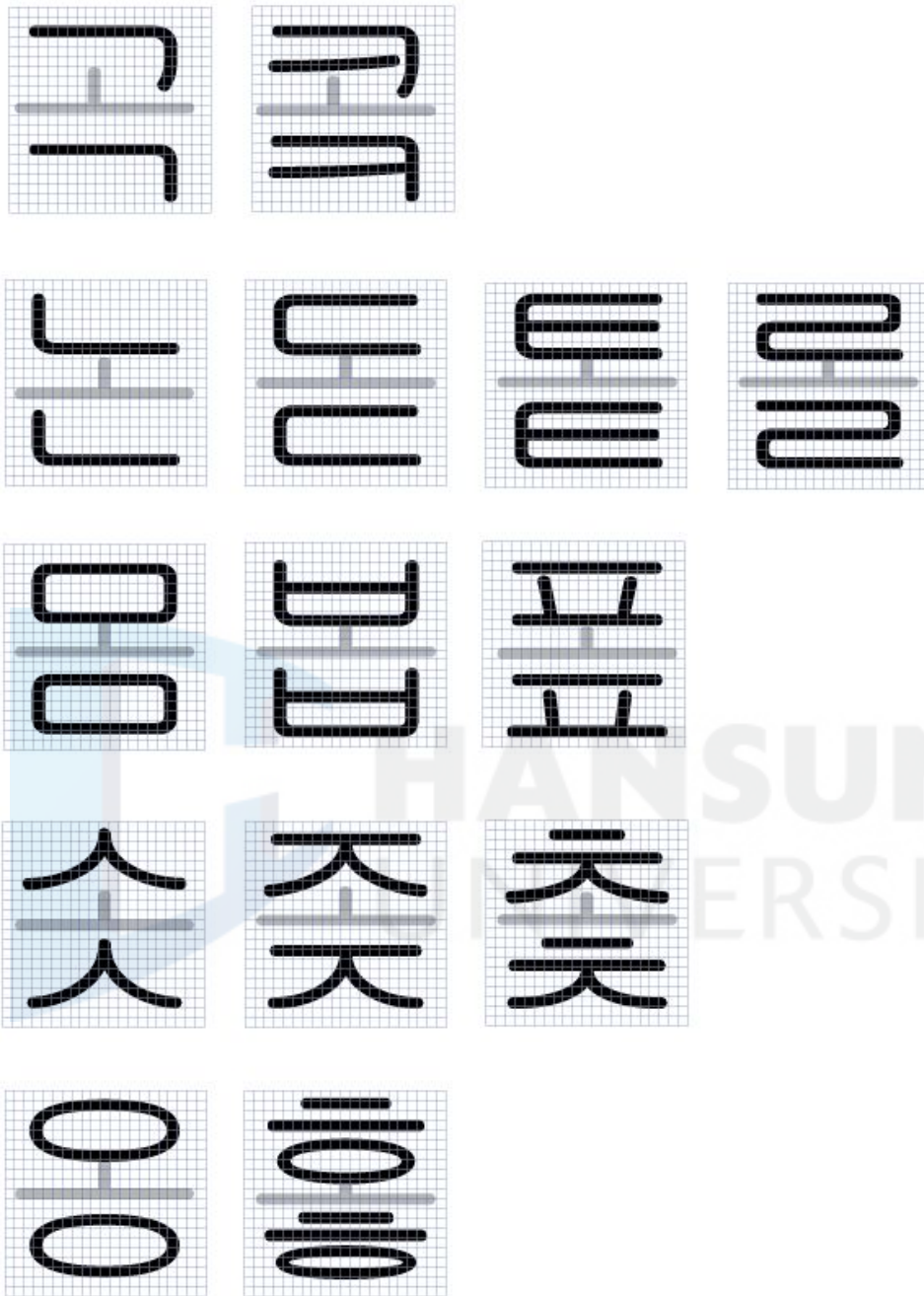
<그림 8> 굴림체의 가로모임 민글자에서의 자음



<그림 9> 굴림체의 가로모임 받침글자에서의 자음



<그림 10> 굴림체의 세로모임 민글자에서의 자음



<그림 11> 굴림체의 세로모임 받침글자



<그림 12> 굴림체의 섞임모임 민글자에서의 자음



<그림 13> 굴림체의 섞임모임 받침글자에서의 자음

2. 굴림체의 모습

모음은 방향성을 가진 낱글자로서 수직형 모음과 수평형 모음, 혼합형모음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받침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굴림체의 모음은 획의 모든 끝이 둥글게 되어 있으며, 수평형의 모음에서 약간의 곡선을 볼 수 있다.

수직형 모음은 세로획이 강조되는 모음으로 아, 야, 어, 여, 이, 애, 얘, 에, 예 이고, 수평형 모음은 가로획이 강조되는 모음으로 오, 요, 우, 유, 으 이며, 혼합형 모음은 가로획과 세로획이 혼합된 모음으로 와, 왜, 외, 위, 위, 의, 웨 가 해당된다. 10)

1) 굴림체의 민글자에서의 모음

굴림체의 모음은 획의 끝이 둥근 것이 특이하며 밝은 홀글자(아, 야, 오, 요, 와, 왜, 외)의 세로줄기의 위치는 가로획의 정 가운데에 있고, 어두운 소리(어, 여, 에, 예, 우, 유, 위, 웨, 위)는 밝은 홀글자보다 세로획이 위에 붙어있다. 세로획은 2mm 이고 가로획은 약 1.7mm로 가로획이 세로획 보다 0.3mm 더 얇다. 밝은 소리의 세로획의 길이가 약 4mm 이고, 어두운 소리의 세로획은 6mm정도로 밝은 소리보다 1/3 정도가 더 길다. 따라서 같은 자음과 조합이더라도 어두운 소리의 모음과 조합하게 되면 자음과 모음이 붙게 된다.

단모음에서 애는 아와 이를 그대로 붙여 놓았고, 에도 어와 이를 붙인 모양이다. 이중모음에서도 마찬가지다. 애는 야에 이를 붙였고, 예는 여에 이를 그대로 더했다. 다시 말해 세로 홀글자에서 (아, 야, 애, 얘, 어, 여, 에, 예, 이) 아, 야, 어, 여에 이를 붙여 애, 얘, 에, 예의 형태를 만든 것이다. 가로 홀글자(오, 요, 우, 유, 으)는 곡선 스타일을 갖는데, 이중모음의 유에서만 첫 번째 세로획만 곡선이 있다. 하지만 섞임 홀글자에서는 오와 우도 곡선을 갖는데, 밝은 소리는 가로획에, 어두운 소리는 세로획에 곡선이 있다. 와와 왜를 보면 와에서 오는 자음에 붙지 않고, 왜에서 오는 자음에 붙는다. 여기서 모음의 획이 아에서 애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음 이용

10) 김진평, 『한글 조형 연구』, 고 김진평 교수 추모논문집 발간 위원회, 1999, p.26.

이 세로로 길어졌다. 따라서 왜에서는 자음이 모음에 붙게 된 것이다. (실제로 모음 오의 세로획 길이는 똑같다.)

2) 굴림체의 받침 글자에서의 모음

민글자에 비해 받침글자의 세로줄기만 짧아졌을 뿐(가로줄기의 길이는 똑같다.) 받침글자에서도 민글자와 마찬가지로 특징을 보이는데, 가로모임 글자에서 유에만 곡선이 있었던 것처럼 받침글자의 가로모임 흘글자에서도 유에만 곡선이 그대로 있다.

그리고 섞임흘글자는 받침이 생기면서 왕, 뺑, 뺑은 오가 자음과 붙게 되었고, 뺑과 뺑의 애와 예는 오른쪽 세로획의 길이가 왼쪽의 세로획의 길이보다 1.5mm더 길다.

민글자	세로흘글자	아야어여이애애에여
	가로흘글자	오요우유으
	섞임흘글자	와왜외워위의웨
받침글자	세로흘글자	앙양엉영잉앵앵엥엥
	가로흘글자	옹용웅융으응
	섞임흘글자	와뺑옹뺑뺑으뺑

<그림 14> 굴림체의 모음 분석도

제 3 절 굴림체의 글자꼴 구조와 형태 비교 분석

글자꼴은 시대의 발달과 함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듬어지고 개선되어 지는데, 우리는 새롭게 제작된 글자꼴들과 기존의 글자꼴을 비교함으로써 기존 글자꼴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절에서의 굴림체의 구조와 형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3절에서는 다른 글자꼴과의 비교를 통하여 굴림체의 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비교분석 대상 글자꼴

2010년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한 나눔고딕과 윤폰트에서 개발한 윤고딕115를 굴림체의 비교 글자꼴로 하였다. 윤고딕은 인쇄매체에 사용되는 돋움체계열의 글자꼴의 대표로 선택하였으며, 나눔고딕은 굴림체를 바탕으로 개선, 제작되어 컴퓨터 화면용 글자꼴로 보급을 시작한 글자꼴이기 때문에 굴림체의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2. 비교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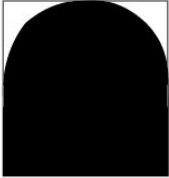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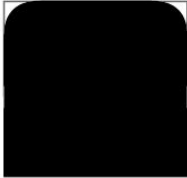
한글 글자꼴은 서양의 알파벳과는 다른 고유의 조형요소를 갖고 있는데 줄기, 즉 획은 한글을 이루는 가장 작은 채료가 되며, 줄기로 이루어진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줄기의 굵기나, 자음과 모음의 조합은 가독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줄기, 2)자음과 모음, 3)자모조합의 구성, 4)글자의 공간분석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한다. 자모합성은 자음과 모음 각각 기본6가지 조합을 기준으로 가로모임, 세로모임, 섞임모임글자 순으로 분석하였다.

3. 비교분석 내용

1) 줄기

굴림체는 돋움체계열의 글자꼴처럼 줄기의 양 끝에 부리가 없으며, 둥근

것이 특징이다. 나눔고딕 또한 줄기의 양끝이 둥글게 되어 있지만, 굴림체는 굴림체의 끝부분이 둥근 것이고 나눔고딕은 줄기의 양끝의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어 사각형의 느낌이 강하다. 나눔고딕의 줄기는 윤고딕과 굴림체 줄기의 특징을 반씩 섞어 놓은 것 같다. 나눔고딕의 줄기 특징은 윤고딕보다 굴림체와 비슷하지만 자음의 형태적 특징은 윤고딕에 가깝다. 윤고딕 115는 정확한 사각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
첫줄기부분			
맺음부분			

<그림 15> 줄기형태 비교분석도

2) 자음과 모음

(1) 자음

굴림체는 ㅋ, ㅌ, ㄹ, ㅈ, ㅊ처럼 줄기가 많은 자소일수록 ㄱ, ㄴ, ㄷ, ㅅ, ㅇ에 비해 진해 보인다. 나눔고딕의 경우 위 가로줄기는 2.15mm, 덧줄기의 두께는 대략 2mm로 덧줄기가 가로줄기의 두께보다 조금 얇다. ㅌ과 ㄹ도 마찬가지로 줄기가 더해질수록 굵기가 얇아지며, 이것은 다른 자소들과 같은 굵기로 보이게 한다. 다시 말해 줄기가 많은 자소일지라도 미세하게 줄기의 굵기를 가늘게 조절함으로써 시각적으로는 같은 굵기로 보이도록 했다. 윤고딕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굴림체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치

지 못했다. 줄기가 많은 자소와 줄기가 적은 자소의 줄기 굵기가 똑같다. 따라서 자소들을 나열했을 때 그 진하기와 두께가 고르게 보이지 않아, 만약 낱자를 이용해 작업할 경우에는 일일이 크기를 조절하고 다듬어서 사용해야 한다.

굴림체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ㅈ ㅊ ㅊ ㅇ ㅎ
나눔고딕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ㅈ ㅊ ㅊ ㅇ ㅎ
윤고딕115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ㅈ ㅊ ㅊ ㅇ ㅎ

<그림 16>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자음형태 비교분석도

(2) 모음

아래의 <그림17>은 각 글자꼴의 모음을 방향성 기준으로 분류한 비교표이다.

모음		
세로출력자	굴림체	ㅏ ㅑ ㅓ ㅕ ㅣ ㅗ ㅛ ㅜ ㅠ
	나눔고딕	ㅏ ㅑ ㅓ ㅕ ㅣ ㅗ ㅛ ㅜ ㅠ
	윤고딕115	ㅏ ㅑ ㅓ ㅕ ㅣ ㅗ ㅛ ㅜ ㅠ
가로출력자	굴림체	ㅏ ㅑ ㅓ ㅕ ㅡ
	나눔고딕	ㅏ ㅑ ㅓ ㅕ ㅡ
	윤고딕115	ㅏ ㅑ ㅓ ㅕ ㅡ
성인화(가)	굴림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나눔고딕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윤고딕115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그림 17>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모음형태 비교분석도

3) 자모조합의 비례와 배치

자음은 한글의 6가지 기본조합에 따라 형태와 위치가 바뀌며, 조합된 자음과 모음의 적절한 크기와 비례, 배치 등이 글자꼴의 성격을 결정짓고, 글자의 속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속공간은 글자의 크기와 자간에 영향을 미치고, 자간은 가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석에 있어서 첫 당자와 받침 당자로는 시각식제부분이 가장 적고 속공간이 뚜렷한 ㅁ을 사용하였다. <그림 18>은 굴림체와 나눔고딕, 윤고딕 115(이하 윤고딕)을 6가지 조합구성에 따라 밝은홀소리와 어두운홀소리로 분류하여 분석한 자음의 비교분석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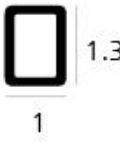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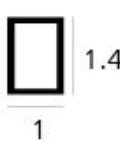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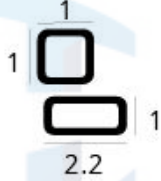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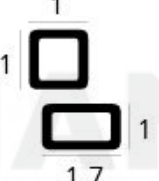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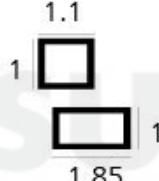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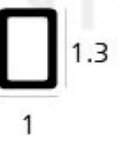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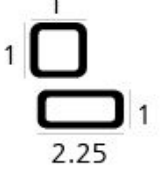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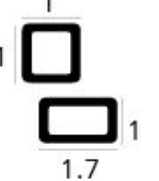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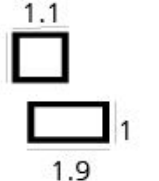
글자꼴 자음구성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
가림어어음자	마	ㅁㅏ	ㅁㅏ	ㅁㅏ	머	ㅁㅑ	ㅁㅑ	ㅁㅑ
	맘	ㅁㅓ	ㅁㅓ	ㅁㅓ	멤	ㅁㅕ	ㅁㅕ	ㅁㅕ
헤림어어음자	모	ㅁㅗ	ㅁㅗ	ㅁㅗ	무	ㅁㅛ	ㅁㅛ	ㅁㅛ
	뭉	ㅁㅜ	ㅁㅜ	ㅁㅜ	뭉	ㅁㅝ	ㅁㅝ	ㅁㅝ
췌림어어음자	와	ㅁㅘ	ㅁㅘ	ㅁㅘ	워	ㅁㅙ	ㅁㅙ	ㅁㅙ
	뽀	ㅁㅚ	ㅁㅚ	ㅁㅚ	뽀	ㅁㅛ	ㅁㅛ	ㅁㅛ

<그림 18>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자음형태 비교분석도

<그림 18>의 세 가지 글자꼴은 부리가 없는 돌움글자꼴이며, 굴림체는

자음의 꺾임 부분이 둥글고 윤고딕은 직각을 이루고 있다. 나눔고딕의 꺾임 부분도 둥글지만 굴림체보다는 둥글기의 정도가 약하고, 윤고딕보다는 강하다. 꺾임 부분이 둥글게 되어있어 굴림체는 나눔고딕과 윤고딕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윤고딕은 다른 세 개의 글자꼴 중에 가장 반듯한 인상을 준다. 굴림체가 나눔고딕과 윤고딕에 비해 자음이 가로로 길고, 글자꼴의 전체적인 형태 또한 다른 두개의 글자꼴보다 가로로 길다.

(1) 가로모임글자

글자꼴 자음구성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
가로모임글자	마			
	맘			
	머			
	멤			

<그림 19>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자음비례 비교분석도-가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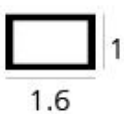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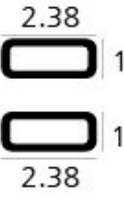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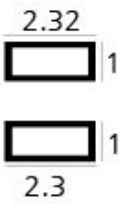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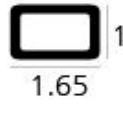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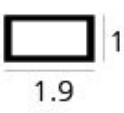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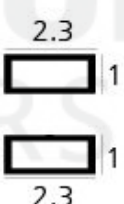
밝은 홀소리에서 가로모임글자 중 마꼴을 보면 굴림체의 ㅁ은 모음의 길이만큼 긴 형태를 갖고 있다. 아래의 비례 비교표는 ㅁ의 가로줄기와 세로줄기의 비례를 측정한 것으로 가로줄기와 세로줄기 중 짧은 줄기를 1로 삼고 분석하였다. 민글자모임의 마꼴에서 굴림체의 ㅁ은 가로 세로 비율 1:1.7로(나눔고딕 1:1.3, 윤고딕 1:1.4) 세 개의 글자꼴 중 가장 길다. 마꼴에서는 밝은 홀소리와 어두운 홀소리가 조합되었을 때도 각 글자꼴의 자음의 크기와 비례가 같았다.

밝은 홀소리조합의 ‘ㅁㅁ’꼴에서는 첫당자가 굴림체 1:1, 나눔고딕 1:1, 윤고딕 1:1.1로 자음이 정사각형이다. 어두운 홀소리조합의 ‘ㅁㅁ’꼴에서는 나눔고딕과 윤고딕의 첫당자가 ‘ㅁㅁ’꼴과 같은 비율이지만, 굴림체는 세로줄기가 약간 더 길다.

(2) 세로모임글자

모꼴에서 밝은 홀소리와 조합했을 때 굴림체 1:1.6, 나눔고딕 1:1.5, 윤고딕 1:1.6으로 세 글자꼴의 자음비례가 거의 같다. 무꼴은 굴림체가 1:2, 나눔고딕이 1:65, 윤고딕이 1:1.9로 비슷해 보이지만, 12포인트 기준으로 굴림체는 ㅁ의 세로줄기가 1.4cm, 윤고딕이 1.37cm로 굴림체의 ㅁ이 세 글자꼴 중 가장 크고 가로로 길게 늘어나 있다. ‘ㅁㅁ’꼴의 굴림체는 첫 당자와 받침 당자의 비율과 크기가 같고, 나눔고딕의 첫 당자가 받침 당자보다 세로줄기가 더 길며, 가로줄기는 더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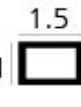
몹꼴에서 굴림체의 첫 당자와 받침 당자의 가로줄기의 길이는 같으나 받침 당자의 세로줄기가 더 길다.

글자꼴 자음구성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
세로모임글자	모			
	몸			
	무			
	뭉			

<그림 20>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자음비례 비교분석도-세로모임

(3) 섞임모임글자

섞임모임에서 밝은 홀소리와 조합되었을 때 세 글자꼴의 ㅁ은 정사각형에 가깝지만, 뭉꼴에서 굴림체의 ㅁ은 1:1.55로 가로줄기가 가로로 많이 늘어나 있다.

글자꼴 자음구성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
선임머리글자	ㅍ	1 	1 	1 
	ㅍ	1  1 	1  1 	1  1 
	ㅍ	1 	1 	1 
	ㅍ	1  1 	1  1 	1  1 

<그림 21>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자음비례 비교분석도-취임모임

(4) 자모조합에 따른 모음의 형태 비교

같은 크기의 글자이지만 나눔고딕의 줄기가 다른 글자꼴보다 약간 더 진해보이고, 마꼴에서는 굴림체의 겹줄기가 기둥의 가운데에 붙어있고, 다른 나눔고딕과 윤고딕은 기둥의 중간보다 조금 위에 붙어있다. 파꼴에서 ㅊ와 ㅊ의 공간구성을 보면, 굴림체는 ㅊ가 ㅊ의 기둥 끝에 있고, ㅊ의 짧

은 기둥이 길어져 있다. 다시 말해 ㄴ가 글자의 바닥에 최대한 닿도록 되어 있다.

글자꼴 모음구성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
가로모음글자	마	ㅏ	ㅏ	ㅏ	머	ㅑ	ㅑ	ㅑ
	맘	ㅓ	ㅓ	ㅓ	멤	ㅕ	ㅕ	ㅕ
세로모음글자	모	ㅗ	ㅗ	ㅗ	무	ㅛ	ㅛ	ㅛ
	몸	ㅛ	ㅛ	ㅛ	뭉	ㅜ	ㅜ	ㅜ
선임의모음글자	와	ㅘ	ㅘ	ㅘ	워	ㅙ	ㅙ	ㅙ
	맘	ㅚ	ㅚ	ㅚ	뽀	ㅚ	ㅚ	ㅚ

<그림 22>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모음 비교분석도

굴림체의 자모의 위치나 공간구성이 다른 글자꼴에 비해 유난히 외각으로 늘어나있는데 이는 글자를 네모틀 안에 맞추려는 의도로, 자모조합에 있어서 가능한 그 외각형태가 사각형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다음 <그림23>은 세 글자꼴의 자모조합의 외곽형태를 비교한 표인데, 굴림체 자모음의 구성, 자모의 크기설정에 있어서 네모틀을 기준으로 조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를 보면 굴림체의 외곽형태가 사각형에 가장 가깝다. 머꼴을 보면 나눔고딕이나 윤고딕이 사다리꼴에 가까운 반면 굴림체의 머는 직사각 형태와 비슷하다.

글자꼴 자유구성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
가나다 이제까지	마				머			
	맘				멤			
세 이제까지	모				무			
	몸				뭉			
정 이제까지	와				워			
	맘				웁			

<그림 23> 굴림체, 나눔고딕, 윤고딕115의 외각형태 비교분석도

4) 글자의 공간분석

글자꼴	구분	글자사이와 낱말사이 비교 (글자꼴 크기: 12pt, 자간: 0)
굴림체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갑니다.
나눔고딕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갑니다.
윤고딕115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갑니다.

<그림 24> 글자사이와 낱말사이 비교

글자사이의 공간과 띄어쓰기 즉 단어사이의 공간은 가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글자의 속공간이 클수록 글자와 글자 사이공간은 줄어들어 자간

이 좁아보이게 된다. 굴림체는 글자 안에 품고 있는 공간과 자간이 넓어
행의 길이가 길어지고 눈의 이동속도를 더디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간을 좁히면 앞글자의 모음과 뒷글자의 자음이 붙어 보이는 그루핑 현
상이 일어나, 결국은 가독성을 해치게 된다.

제 4 절 굴림체의 비교 분석 결과

위의 분석을 통해 굴림체가 한글이 가진 독특한 조형적 성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을 크
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각형 틀에 맞춰 제작되었다. 굴림체의 자소들은 최대한 보이지
않는 네모틀에 가능한 가득 채워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성격은 자음
의 형태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가로로 심하게 늘어나는 등 조합에 따라
바뀌게 된다.

둘째, ㄱ이나 ㅌ과 같이 덧줄기가 있는 자소의 줄기 굵기가 조정되지 않
아 다른 자소들에 비해 진해 보인다. 한글은 줄기(획)삭제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며 줄기 수에 따라 글자의 진하기가 달라 보인다. 따라서 이런 한
글의 특징을 고려하여 줄기가 많은 글자는 일일이 줄기 굵기를 조정해줍
으로 다른 글자와의 진하기를 고르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
았듯이 굴림체는 자음의 덧줄기가 있는 자소일 경우에도 덧줄기와 가로줄
기의 굵기가 정리되지 않아 본문용으로 쓰일 때 지면이 얼룩덜룩 해 보이
는 현상이 일어나 어수선했던 느낌이 든다.

셋째, 글자꼴에 대한 공간배분의 실패했다. 낱글자를 식별하는 그루핑
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진다. 속공간이 커지면서
글자가 커 보이고 주변공간이 줄어들어, 자간을 조정했을 때 앞글자의 모
음과 뒷글자의 자음의 그루핑 현상이 일어난다. 결국 이런 잘못된 그루핑
현상은 글자의 가독성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

제 5 절 사용현황 및 사례

이 절에서는 굴림체가 이력서나 관공서의 신청서 양식 등의 문서이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는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래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다.



<그림 25> 굴림체 사용 사례 - 1



<그림 26> 굴림체 사용 사례 - 2



<그림 27> 굴림체 사용 사례 - 3

위의 사용 현황을 보면 굴림체가 출판물에서부터 지하철의 안내전광판까지 분야에 관계없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력서, 영수증, 은행의 자동인출기, 지하철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굴림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4 장 설문설계 및 실험

제 1 절 설문방법 및 계획

설문을 통해 전공자와 비전공자들의 굴림체에 대한 선호도와 차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 이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기본적인 근거자료가 된다. 설문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누고 인쇄물로 진행하였다.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보기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번에서는 글자꼴에 대한 익숙도, 2번에서는 선호도, 3번에서는 문서양식 안에서의 글자꼴 선호도, 4번에서는 굴림체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 2 절 설문대상

설문대상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분류하고 비전공자는 일반인, 공무원으로 나누어 각 집단마다 100명씩(전공자 100명, 일반인 100명, 공무원 100명) 진행했다. 설문대상을 위와 같이 나눈 이유는 첫째, 전공자와 비전공자들의 견해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교육의 유무가 굴림체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함이고, 둘째로 비전공자를 다시 일반인과 공무원(교직원 포함)으로 나눈 것은 일반인에 비해 특히 공무원과 교직원들이 신청서양식이나 공문 등 규격화된 문서를 작성하고 자주 보고 익숙해져있기 때문이다. 굴림체는 특히 학교의 신청서 양식, 기업들의 사업자등록증 같은 각종 공문서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그들의 설문을 통해 굴림체의 선호도와 환경이 글자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더불어 그 원인에 대한 개선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제 3 절 설문내용

설문은 굴림체에 대한 내용이란 것을 알리지 않고 진행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총 8개인데, 1-1번, 1-2번, 2-1번, 2-2번으로 4문항은 한 페이지에 두 문항씩 묶여있다. 3-1번과 3-2번은 한 문항이 각각 한 페이지에 있으며 4-1번과 4-2번 문항도 한 페이지에 묶여있다. 각 페이지의 첫 번째 문항에서는 글자꼴을 고르고 다음 문항에서 그 이유에 대해 선택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1-1번에서는 4개의 글자꼴을 보기로 주고 가장 익숙해 보이는 글자꼴을 선택하는 것이다. 오른쪽의 1-2번 문항에서는 1-1번 문항에 그렇게 답한 이유를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1-1 번과 2-1 번에서는 보기로 돋움체, 바탕체, 굴림체, 안상수체를 제시했다. 이렇게 4개를 보기로 정한 이유는 먼저 익숙한 글자가 고딕체인지 명조체인지 아니면 탈네모꼴의 글자꼴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즉 고딕체나 명조체의 선호도가 굴림체의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1-2번을 통해 익숙해지는 정보의 통로가 인쇄매체로부터인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각각의 다른 글자꼴로 된 보기는 ‘가노단몸뚱’이라는 하나의 나열이다. 어떤 특정한 단어나 문장의 이미지가 글자꼴로 연결돼, 글자꼴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장을 선택했다. ‘가노단몸뚱’은 한글의 글자꼴에 대한 성격을 알게 해주는 가로모임, 세로모임, 섞임모임으로 조합된 글자들이다.

2-1번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글자꼴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기는 1-1번 문항과 같다. 이 문항에서는 익숙한 정도에 이어 어떤 글자꼴을 선호하는지 알기 위한 것이다. 3-1번 문항은 4개의 글자꼴로 된 이력서를 보기로 제시하는데, 이 문항은 2-1번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3-1번에서는 이력서를 쓴다면 어떤 글자를 선택하고 싶은가를 묻는 것이다. 단지 글자꼴만을 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있는 규격화된 문서안의 굴림체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다시 말해 그냥 굴림체로서가 아닌 실제로 자주 쓰이는 공문서나 신청서 양식 안에서의 굴림체의 선호

도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함이다. 마지막 4-1번에서는 굴림체로 된 문장을 보여주고 전반적인 이미지를 7개의 보기에서 선택하게 한 후 4-2번에서 자유롭게 글자꼴에 대한 느낌을 적도록 하였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는 몇 가지 질문이 더 추가되는데 글자꼴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질문이다. 4번은 사용하는 글자꼴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질문이며, 5번은 글자꼴에 대한 인식도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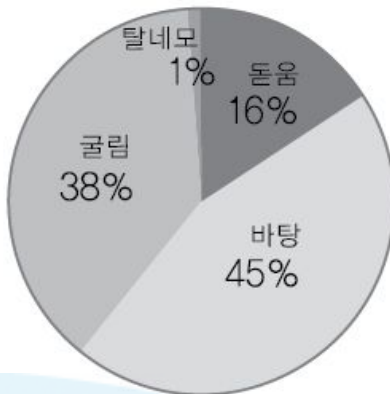
5-1번에서는 다양한 글자꼴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물어보고, 5-2번에서는 글자꼴이 기안이나 혹은 문서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음으로 글자꼴의 중요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5-5번과 5-6번을 통해 지정된 글자꼴이 아닌 다른 글자꼴로 바꿔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함으로 개선의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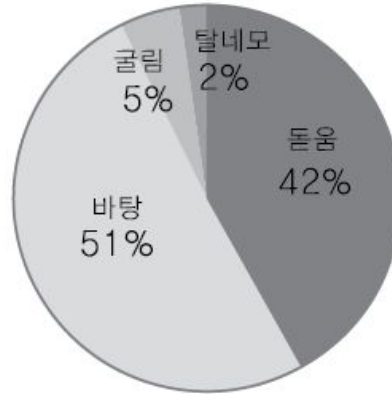
제 5 절 설문결과

다음은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설문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1-1. 다음 글자꼴 중 익숙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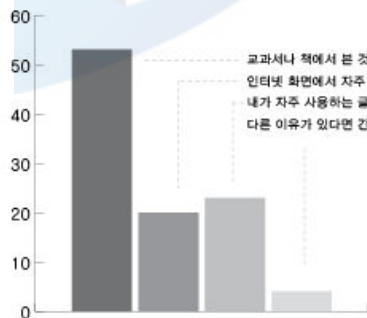


비전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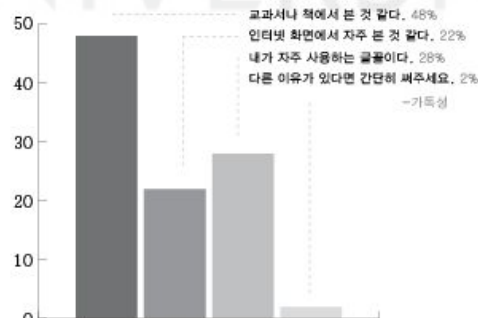


전공자

1-2. 위 문항에서 답한 글자꼴이 익숙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전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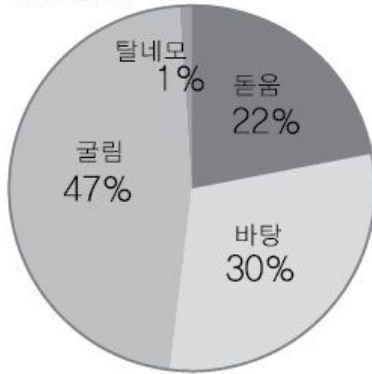


전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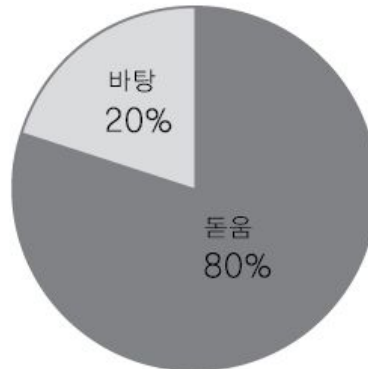
<그림 28> 설문결과 - 1

2-1. 다음 글자꼴 중 본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글자꼴은 무엇입니까?

바탕 굴림 맑고름 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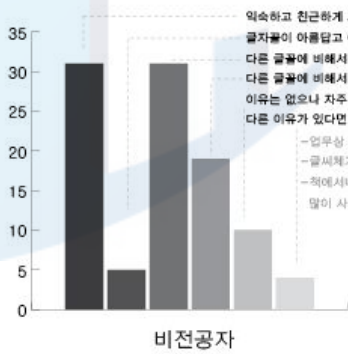


비전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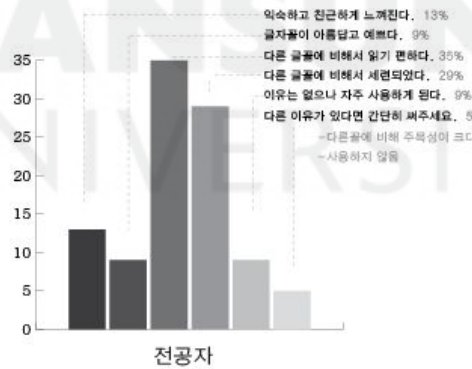


전공자

2-2. 위 문항에서 답한 글자꼴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전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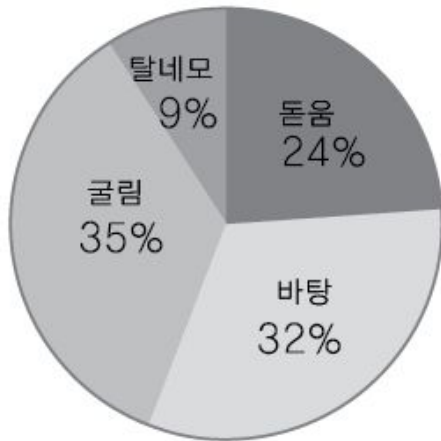


전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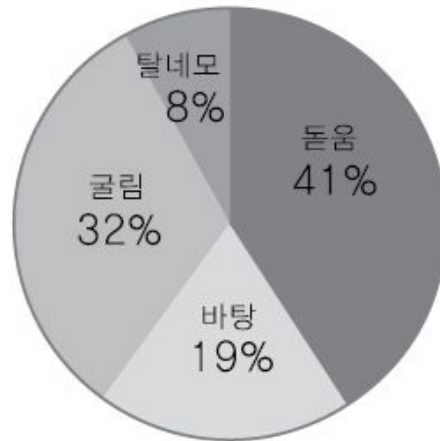
<그림29> 설문결과 - 2

3-1. 다음 4개의 이력서에 사용된 글자꼴 중 선호되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비전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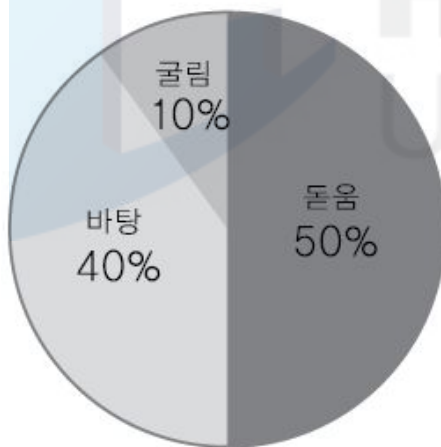


제 1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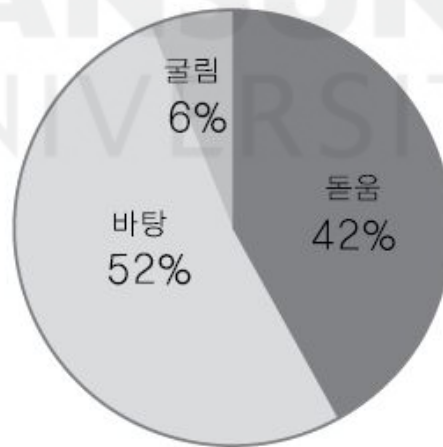


제 2 선호

전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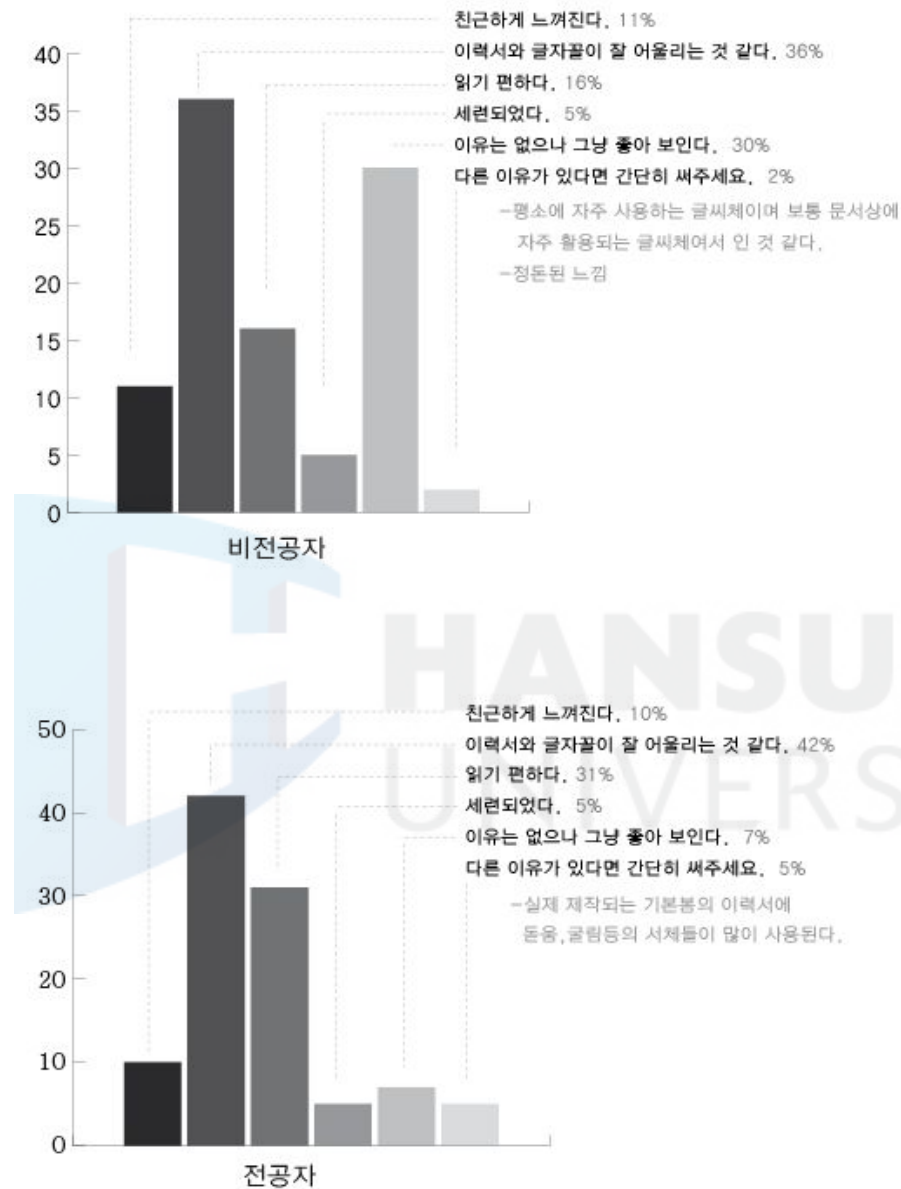
제 1 선호



제 2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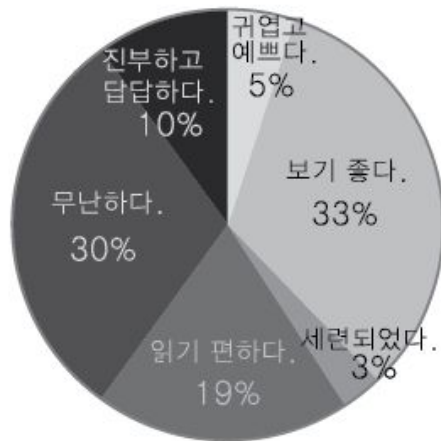
<그림 30> 설문결과 - 3

3-2. 위 문항에서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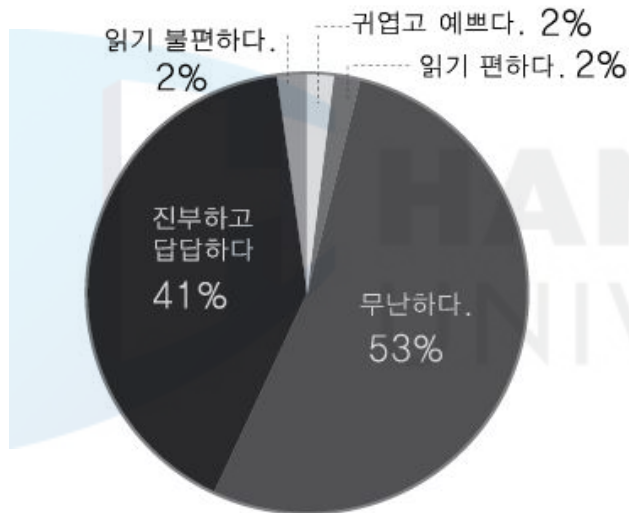
<그림 31> 설문결과 - 4

4-1. 위의 글자꼴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비전공자

귀엽고 예쁘다. 5%
 보기 좋다. 33%
 세련되었다. 3%
 읽기 편하다. 19%
 무난하다. 30%
 진부하고 답답하다. 10%
 읽기 불편하다. 0%



전공자

귀엽고 예쁘다. 2%
 보기 좋다. 0%
 세련되었다. 0%
 읽기 편하다. 2%
 무난하다. 53%
 진부하고 답답하다. 41%
 읽기 불편하다. 2%

<그림 32> 설문결과 - 5

익숙도에 관한 설문에서는 비전공자와 전공자 모두 바탕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반면 비전공자는 38%, 전공자는 5%로 굴림체에 대한 익숙도는 비전공자가 훨씬 많았고, 돋움체의 익숙도는 전공자가 42%로 비전공자보다 26% 더 높게 측정되었다. 선택한 글자꼴이 익숙해 보이는 이유로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책이나 교과서 등 인쇄물을 통해 익숙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자주 사용하는 글자꼴을 선택하는 질문에서는 비전공자가 47%로 굴림체를 선택했고, 전공자는 80%가 돋움을 선택했다. 전공자는 돋움에 이어 나머지 20%가 바탕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 비전공자가 굴림체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글자꼴로 선택했고 전공자 중에는 굴림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본 설문대상자 중 아무도 없었다. 자주 사용하는 이유로는 비전공자들이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31%, ‘다른 글자꼴에 비해 읽기 편하다.’가 31%이고, 전공자 중 35%는 ‘다른 글자꼴에 비해 읽기 편하다’를 선택했다.

세 번째, 네 개의 이력서를 보여주고 선호하는 순서대로 나열하게 했다.

앞 페이지의 그래프는 네 개의 이력서를 나열한 것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선택한 것만 정리한 것이다. 비전공자는 자주 사용하는 글자꼴 선택에 이어 이력서의 선호도에서도 굴림체가 35%로 가장 많았다. 전공자 또한 돋움이 50%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는 비전공자와 전공자 모두 ‘이력서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굴림체로 쓰인 문구를 보여주고 이미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비전공자는 보기 좋다 33%, 무난하다 30%, 읽기 편하다 19% 순으로 선택했고 진부하고 답답하다고 답한 사람은 10% 밖에 되지 않았다. 전공자 또한 50% 이상이 굴림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41% 또한 진부하고 답답하다고 답했다. 비전공자는 읽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9%인 반면 전공자 중 2%만 읽기 편하다고 답했다.

다음은 굴림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해 전공자들이 자유롭게 서술한 내용이다.

1. 조형성이 떨어진다.

- 눈에 익숙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다. 개성이 없는 것 같다.
- 네모꼴에 인위적으로 채워 답답한 느낌이다.
- 한글의 조형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 한글에 맞지 않는 배열과 공감. 무언가 병병한 느낌이 좋지 않다.
- 단어와 글자꼴의 매치가 다소 부자연스럽다.
- 글자체의 조형미가 떨어진다.
- 굴림체 자체가 일본 글자꼴에서 따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글글자꼴과 어울리지 않는다.
- 우리나라 글자꼴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이다. 글자꼴의 공간을 생각하지 않았다.
- 한글의 조형미를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 가로줄기, 세로줄기의 두께가 균일하고, 서체 자체의 조형적 아름다움이 부족해 보인다.
- 이용의 모양, 좀 어눌해 보이는 면이 있어서 쓸 곳을 잘 선택해야 한다.
- 글자 속공간이 병병하고 곡선처리가 기계적이다.

2. 완성도에서 미흡하다.

- 완성도는 조금 떨어져 보인다.
- 아무런 특징 없이 밋밋한 글자꼴이다.
- 재미없고 심심하며, 다듬어지지 않았다.
- 큰 특징은 없어 보인다.
- 약간 촌스럽고 이 글꼴로 문장을 썼을 경우 고딕체에 비해 날렵함이나 세련됨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글씨체이다.

3. 세련되지 못하며, 진부하다.

- 화면에 한 글자, 한 글자 짝 차있어서 시원시원한 느낌이지만 자소의 형태와 모듈이 예전스타일이라서 오래된 느낌이다.
- 박스형의 옛날 느낌이다.

- 동글동글 귀엽지만,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 글꼴이 고딕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공식적 문서나 자리에서 는 적합하지 못한 느낌. 세련되기 보단 촌스러운 느낌에 가깝다.
-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 세련되지 못하고 70년대 글자 같다.
- 독립적인 사용 및 간단한 사용은 별 무리가 없으나 다른 사진이나 글자 의 크기 등 편집을 하게 되면 못난 서체가 되는 듯하다.
- 아주 기본적인나 촌스럽고 형태적이지 못하다.
- 세련된 느낌보다는 다소 가벼운 느낌이 든다.

4. 무난하다.

- 오랫동안 보아왔고 크게 조형미가 떨어지지 않아 무난하게 쓸 수 있다.
- 글자의 두께가 두껍지 않아 눈에 부담이 없으며 글자마다 네모난 사각형 에 딱찬 느낌이 들어 안정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획이 일정하고 일관성이 느껴지지 않아 가독성은 낮아 보인다.
- 무난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읽기에 큰 어려움과 부담은 없으나 글자체가 다소 가벼운 느낌을 준다.
- 개인적인 생각에 일반적으로 서체를 사용하는 비전문가와 전문적으로 서 체를 사용하는 전문가 모두에게 무난한 서체가 아닌가 생각한다.
-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딱히 매력적이지 않은 것도 아 니다.
- 전체적인 느낌은 안정감 있고 무난하다. 하지만 특이하거나 디자인이 획 기적이라거나 하는 처음에 시선을 끄는 글자꼴은 아닌 것 같다.
- 서류작성이나 편집 디자인 할 때 본문에 쓰기 좋은 서체여서 글자사이 와 글줄길이를 조정한다면 가독성 좋고 깔끔한 편집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글자꼴의 끝이 둥글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고딕계열 글 자꼴 특유의 안정감이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느낌을 준다.
- 평범하다. 그러한 느낌은 글자꼴 디자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글자꼴

을 일반인이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한 글자 한 글자의 형태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 홀대받을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친근하며 무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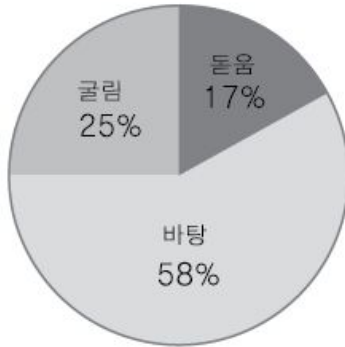
5. 기타

- 관공서의 느낌이 난다.
- 기본적인 이미지이지만 사용하고 싶지 않다.
- 아무 생각 없이 보아왔던 글자꼴이라 거부감은 없다. 단지 다른 글자꼴과 쓰면 정말 어눌해 보인다.
- 싫거나 나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좋지 않을 뿐이다.
- 전체적으로 별다른 느낌을 받을 수 없는 서체인 것 같다. 굴림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것 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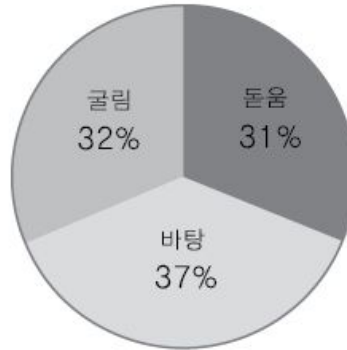
위 설문을 통해 비전공자들이 전공자에 비해 굴림체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글자꼴에 대한 관심도와 개선의식은 얼마나 될까? 다음은 공문서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그래프이다.

공무원

1-1. 다음 글자꼴 중 익숙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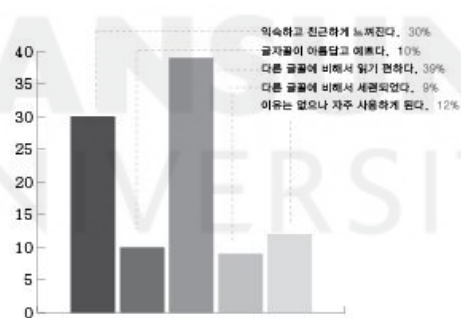
2-1. 다음 글자꼴 중 본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글자꼴은 무엇입니까?



1-2. 위 문항에서 답한 글자꼴이 익숙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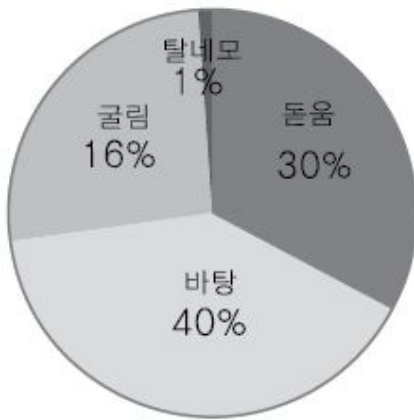


2-2. 위 문항에서 답한 글자꼴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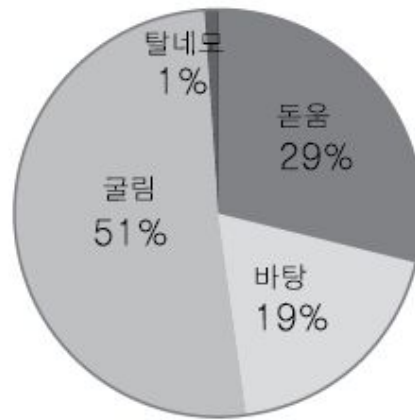


<그림 33> 설문결과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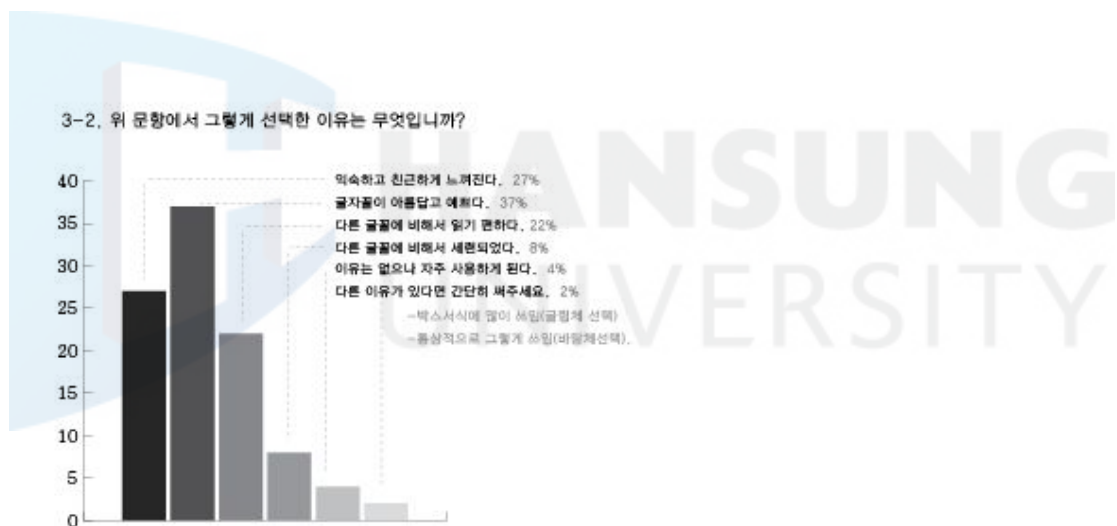
3-1. 다음 4개의 이력서에 사용된 글자꼴 중 선호되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제 1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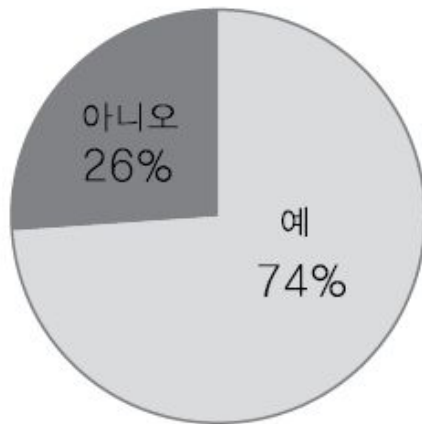


제 2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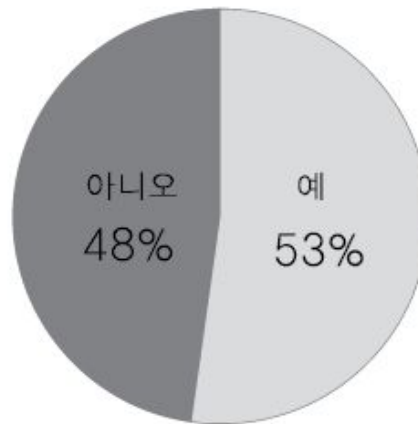


<그림 34> 설문결과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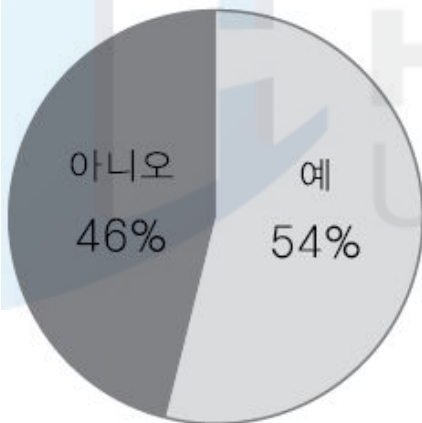
4-1. 문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글자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4-2. 만약 사용하는 글자꼴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무슨 글자꼴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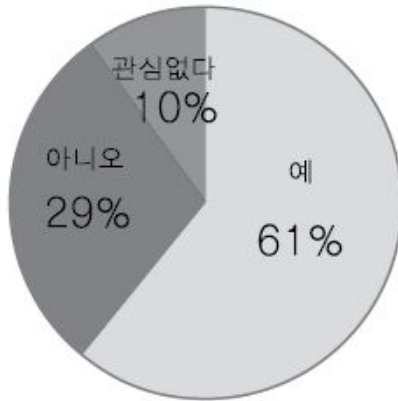


4-3. 만약 사용하는 글자꼴이 무엇인지 궁금했다면
그 글자꼴을 찾아보거나 확인해보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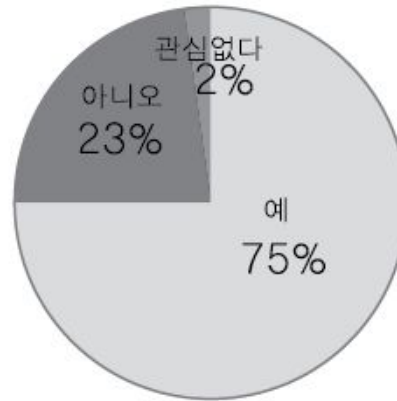


<그림 35> 설문결과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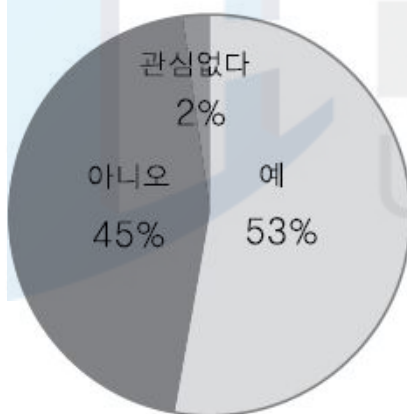
5-1. 현재 다양한 인쇄용과 웹용 글자꼴들이 개발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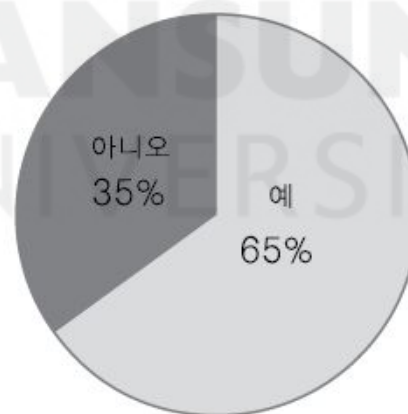
5-2. 글자꼴이 기안 혹은 문서의 내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글자꼴을 사용하면 내용이 더욱 설득력있다고 생각합니까?)



5-3. 공문(혹은 기안이나 신청서)을 작성할 때 지정되어 있는 글자꼴이 마음에 드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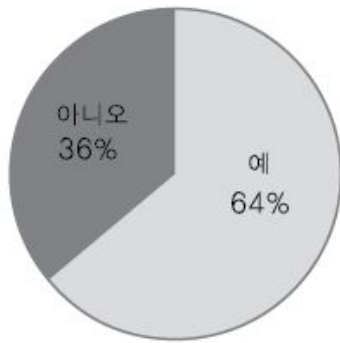


5-4.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글자꼴로 바꿔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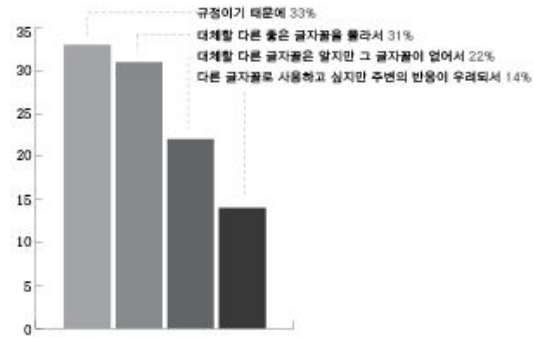


<그림 36> 설문결과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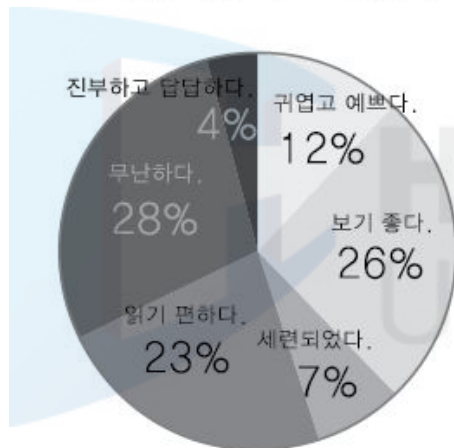
5-5. 마음에 들지 않는 글자꼴일 경우, 다른글자꼴로 바꿔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5-6. 다른 글자꼴로 바꿔 사용하지 않는 이유 또는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1. 위의 글자꼴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귀엽고 예쁘다. 12%
 보기 좋다. 26%
 세련되었다. 7%
 읽기 편하다. 23%
 무난하다. 28%
 진부하고 답답하다. 4%
 읽기 불편하다. 0%

<그림 37> 설문결과 - 10

1-1번 질문에서 공무원 중 58%가 바탕체를 선택했으며, 2-1번 질문에서는 37%가 바탕체를, 32%는 굴림체를 선택하였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글자꼴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는데, 4-1번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글자꼴이 무엇인지 아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자 중 74%가 ‘예’라고 답했다. 만약 몰랐다면 무슨 글자꼴을 사용하고 있는 궁금해 한 적이 있는지 있느냐는 질문에 4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또한 5-2번 질문에서 답변자 중 50%이상이 글자꼴이 기안이나 문서의 내용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데 비해 5-5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자꼴 일 경우 다른 글자꼴로 바꿔 사용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6%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답변자 중 30%이상이 ‘규정이기 때문에’를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굴림체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보기 좋다 26%, 읽기 편하다. 23%, 무난하다. 28%로 매우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NSUNG
UNIVERSITY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지적된 굴림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타당한 해답을 찾고자 우선 굴림체의 제작배경 및 조형요소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그 선호도를 디자인적 관점아래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굴림체의 자소들은 최대한 사각형틀에 가능한 가득 채워진 구조로 자음의 형태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가로 폭이 심하게 늘어나 자모조합에 따른 변화를 보였다. 또한 ㄱ이나 ㅌ과 같이 덧줄기가 있는 자소의 줄기 굵기의 조정이 고르지 않아 본문용으로 쓰일 때 지면의 회색도가 불규칙해 보이는 현상을 일으켰다. 따라서 줄기수가 많은 한글 글자꼴의 특징을 고려하여 각 글자마다의 줄기 굵기를 조정해 줌으로써 다른 글자와의 고른 회색도를 유지하는 조정 작업이 필요함이 파악되었다.

둘째, 불규칙한 공간배분으로 인해 낱글자를 식별하는 그룹핑 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졌으며, 특히 자소의 속공간이 넓어 글자가 커 보이는 반면 주변공간이 줄어들어 자간 조정 시 가독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한글 글자꼴은 시각적으로 일관되게 보이도록 다양한 조형 조건에 따른 세심한 정리 및 조정이 요구되는데 굴림체는 이러한 과정도 없이 글자꼴의 원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적합한 조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그러나 분석 결과에서 지적된 굴림체 조형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또한 설문을 통한 일반인들의 굴림체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확인되었다. 즉 굴림체의 문제점을 비전공자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꼴 중에는 잘 다듬어지고 오랫동안 세밀한 연구 과정을 통해 제작된 글자꼴이 있는가 하면, 굴림체와 같이 올바른 제작 과정을 거치지 못해 그 조형성이 조악함에도 오랫동안 익숙하고 친숙하게 습관적으로 사용되어진 글자꼴들도 있다.

이런 글자꼴은 비록 정확한 제작의 역사도 없고 조형성도 인정받지 못

하지만 또한 나름대로의 짧은 한글 수난의 역사를 대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비록 좋은 조형성을 갖추지 못한 글자꼴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한글 글자꼴의 역사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내재된 글자꼴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욱 발전된 글자꼴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시대의 디자이너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임무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한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문화임과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시각기호이다. 따라서 한글을 더욱 아름답고 한글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좋은 글자꼴을 연구 개발하고 활용하며 아울러 책임감을 갖고 글자꼴에 대한 계몽의식을 널리 알려, 사회의 시각적 환경개선의 진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지현, 『타이포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브랜미술, 1992
- 김진평, 『한글의 글자표현』, 1983
- 김진평, 『한글조형연구』, 고 김진평 교수 추모 논문집 발간 위원회, 1999
- 유정숙·김지현, 『한글공감』, 안그라픽스, 2010
- 칼 스완(저), 송재성(역), 『언어와 타이포그래피』,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한국글꼴개발원, 『한글꼴용어사전』, 1988
- 안상수·한재준·이용제, 『한글디자인교과서』, 안그라픽스, 2009
- 이기성,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한글디자인』, 장왕사, 2007

2. 국내논문

- 김미진, 「헤드라인을 위한 한글문자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미술학전공 석사논문, 1982
- 유경선, 「한글타이포그래피의 형성과정고찰」, 상명여자대학교, 1989
- 유정숙, 「한글 디지털 돌움체 조형요소의 변화와 타이포그래피 특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 연구 Vol.11, No.1, 2010
- 유정숙, 「한글 옛 글자꼴의 변천 및 조형성 고찰」, 2008, 한국어학 41호

3. 인터넷

- http://www.jiyu-kobo.co.jp/mojimaga/mm_giants/03/mm_giants03_2.html

【부 록】

- 설문지 1 - 전공자·비전공자 대상
- 설문지 2 -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



설문지

대하원 시각커뮤니케이션전공 최종화입니다. 글꼴 선택도 관련 연구 논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꿔시겠지만 다음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령:

성별:

전공 및 직업:

“설문은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본 설문은 논문의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HANSUNG
UNIVERSITY

1-1. 다음 글자꼴 중 익숙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글자꼴에 O 표시를 해주세요.]

- ① 가고과강곰광
- ② 가고과강곰광
- ③ 가고과강곰광
- ④ 가고과강곰광

1-2. 위 문항에서 답한 글자꼴이 익숙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교과서나 책에서 본 것 같다.
- ② 인터넷 화면에서 자주 본 것 같다.
- ③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글꼴이다.
- ④ 다른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써주세요.

()

2-1. 다음 글자꼴 중 본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글자꼴은 무엇입니까?

- ① 가고과강곰광
- ② 가고과강곰광
- ③ 가고과강곰광
- ④ 가고과강곰광

2-2. 위 문항에서 답한 글자꼴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② 글자꼴이 아름답고 예쁘다.
- ③ 다른 글꼴에 비해 읽기 편하다.
- ④ 다른 글꼴에 비해 섹션 세련되었다.
- ⑤ 이유는 없으나 자주 사용하게 된다.
- ⑥ 다른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써주세요.

()

3-1. 다음 4개의 이력서에 사용된 글자꼴 중 선호되는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①

				이 력 서	
사 진	성 명	①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일생 (만 세)			

②

				이 력 서	
사 진	성 명	②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일생 (만 세)			

③

사 진	이 려 서		
	성 명	인	주 민 등 록 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인성 (만 세)
주소			

④

사 진	이 려 서		
	성 명	인	주 민 등 록 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인성 (만 세)
주소			

3-2. 위 문항에서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원근하게 느껴진다.
- ② 이력서와 글자꼴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 ③ 읽기 편하다.
- ④ 세련되었다.
- ⑤ 이유는 없으나 그냥 좋아 보인다.
- ⑥ 다른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써주세요.

(

)



HANSUNG
UNIVERSITY

우리나라 대한민국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4-1. 밑의 글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어떻게?
(여러개를 체크해도 됨)

- ☐ ㉠ 귀엽고 예쁘다.
- ☐ ㉡ 보기 좋다.
- ☐ ㉢ 세련되었다.
- ☐ ㉣ 읽기 편하다.
- ☐ ㉤ 무난하다.
- ☐ ㉥ 진부하고 답답하다.
- ☐ ㉦ 읽기 불편하다.

4-2. 밑의 글자들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적당적인 선문 원조에 감사드립니다.



HANSUNG
UNIVERSITY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에서 시각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최정화입니다. 저는 현재 글꼴 선호도와 관련된 논문을 진행 중이며, 교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통해 교직원 및 공무원들의 글꼴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선호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논문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음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은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연락처:

성별:

전공 및 직업:

한성대학교 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커뮤니케이션 제어실 연구 책임 하
281173@hansung.ac.kr
010-9043-0944



HANSUNG
UNIVERSITY

1-1. 다음 글자쌍 중 가장 익숙한 글자쌍은 무엇입니까?
(배열하는 글자쌍에 O 표시 또는 V 해주세요.)

- ① 가고과강곰광
- ② 가고과강곰광
- ③ 가고과강곰광
- ④ 가고과강곰광

1-2. 위 문항에서 답한 글자쌍이 익숙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표피적이나 책에서 본 것 같다.
- ② 인터넷 화면에서 자주 본 것 같다.
- ③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글꼴이다.
- ④ 이유는 잘 모르나 익숙해보인다.

2-1. 다음 글자꼴 중 본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글자꼴은 무엇입니까?

- ① 가고과강곰광
- ② 가고과강곰광
- ③ 가고과강곰광
- ④ 가고과강곰광

2-2. 위 문항에서 입한 글자꼴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② 글자꼴이 아름답고 예쁘다.
- ③ 다른 글자꼴에 비해서 읽기 편하다.
- ④ 다른 글자꼴에 비해서 세련되었다.
- ⑤ 이유는 없으나 자주 사용하게 된다.

3-1. 다음 4개의 이력서에 사용된 글자꼴 중 선호되는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①

		이 력 서		
사 진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②

		이 력 서		
사 진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③

사 진	이 려 서		
	성 명	인	주 민 영 통 고 보 장
	성년필요인	년 월 일	일월 (만 세)
주 소			

④

사 진	이 려 서		
	성 명	인	주 민 영 통 고 보 장
	성년필요인	년 월 일	일월 (만 세)
주 소			

3-2. 위 문항에서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권근하게 느껴진다.
 - ② 이덕서의 글자꼴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 ③ 읽기 편하다.
 - ④ 세련되었다.
 - ⑤ 이유는 없으나 그냥 좋아 보인다.
 - ⑥ 다른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써주세요.
- ()

4-1. 문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글자꼴이 무엇인지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2. 만약 사용하는 글자꼴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3. 만약 사용하는 글자꼴이 궁금했다면, 그 글자꼴을 찾아보거나 확인해 보았습니까?

- ① 예
- ② 궁금해지만 찾아보지 않았다.

5-1. 현재 다양한 인쇄물과 웹용 글자꼴들이 개발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관심없다

5-2. 글자꼴이 가진 혹은 문서의 내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글자꼴을 사용하면 내용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관심없다

5-3. 공문(혹은 기안)이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지정되어있는 글자꼴이 마음에 드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관심없다

‘예’ 선택 시 다음 2 문제점(5-4, 5-5번) 건너 뛰시오.

5-4.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글자꼴로 바꿔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5. 마음에 들지 않는 글자꼴일 경우, 다른 글자꼴로 바꿔 사용할 의향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6. 다른 글자꼴로 바꿔 사용하지 않은 이유 또는 사용하지 않으려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규정이기 때문에
② 대체할 다른 좋은 글자꼴을 몰라서
③ 대체할 다른 글자꼴은 없지만 그 글자꼴이 없어서
④ 다른 글자꼴로 대체 사용하고 싶지만
주변의 반응이 우려되서

아름다운 우리 한글

6-1. 위의 글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어떤습니까?
(여러개를 체크해도 됨)

- ① 귀엽고 예쁘다.
- ② 보기 좋다.
- ③ 세련되었다.
- ④ 읽기 편하다.
- ⑤ 무난하다.
- ⑥ 진부하고 답답하다.
- ⑦ 읽기 불편하다.

6-2. 위의 글자들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적극적인 전문 원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식각예문나제이전 전공 최 용 화
31173@hansung.ac.kr
010-9043-0244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Preference Analysis of Gulim

Choi, Jeong Hwa

Major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t. of Media Desig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Gulim is the most common letter form among people both off and online. However, despite of its high popularity, there is almost no data on its history and production background and no study on its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Moreover, some typographers recently have suggested avoiding Gulim. Why is it not favored by them even though people still prefer using it?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problems Gulim has and draw practical solutions to them. This research aims to find concrete answers for the above question. For this, it studies traits of Gulim and analyzes its popularity in terms of design. That is, it investigates that what is wrong with the common and easy use of Gulim and why this should be fixed. In addition, it hopes to contribute to future oriented development of Hangul with proper recognition and improvements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Conclusions are the following.

Firstly, the consonants and vowels of Gulim are made under limits of a square frame and its consonants thus have no steady feature and its stretched width changes when vowels and consonants combine.

Also, Consonants with added lines such as ㄱ or ㅋ have uneven thickness and gray scale of them look irregular for a displa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controlling the thickness of lines is necessary to have steady gray scale as Hangul has many lines.

Secondly, this irregular space arrangement makes it difficult to indentify each letters- grouping- and reduces readability. It particularly makes letters look larger due to wide inner space while narrows its surrounding room. So it seems not to have appropriate formativeness as it does not keep letter principle without careful arrangement that requires steady look under various letter combinations. However, Surveys confirmed that Gulim has enjoyed much popularity in spite of all these formative problems pointed out in analysis.

In other words, non-professionals are not aware of these issues at all. It proves that there are some shoddy letter styles that have been long used familiarly regardless of their formative defects while some decent ones that have been well made through detailed research. This seems to represent short history of Hangul, which has been accompanied by many historical hardships, even though they don't have exact production background and formativeness acknowledged.

Accordingly, typographers should take a closer look at history of Hangul characters and build up the base for creating better characters solving problems of letter styles poorly built.

Hangul is a basic visual symbol of Korea as well as representative mark and culture of one. Therefore, it is designers' duty to study, develop and apply good Hangul letter styles for making Hangul more

beautiful and more Hangul-like and lead an awareness of suitable letter styles for visual improvement of social environment.

